



2024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2024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2024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2024

아이돌봄서비스
꿈
수기공모 수상집

Contents

대상

이용자

- 04 권선화 • 직장맘 23년을 지켜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 09 김선혜 • 민우(가명)와 함께한 4년, 오늘도 설렘 속에 집을 나선다

종사자

- 15 이선옥 • 흔들림 셋, 흔들린 나무가 숲을 이룬다

우수상

이용자

- 19 박미소 • ‘할세권’보다 든든한 돌봄세권

- 24 박서연 • 육아서보다 큰 울림이 있는 우리 선생님

- 29 이은희 • 돌보미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야!

- 33 정창민 • 아이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 38 황지혜 • 세쌍둥이 엄마를 일으켜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 43 심진숙 • ○○이가 맘에 들어서 오래오래 해보려고!

- 48 이명자 • 찬란한 봄날의 시작

- 52 이연향 • 쌍둥이와 함께 커가는 나를 찾아서

종사자

- 57 최규리 • 감동과 서사가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장려상

이용자

- 62 강민구 • 우리 가족의 든든한 동아줄

- 66 김민주 • 웃음전도사가 선생님이 왔어요

- 70 박수경 •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희망이다

- 74 서혜진 •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쓰고 부모돌봄서비스라고 읽다

- 79 신재은 • 산후우울증 극복의 명약, 아이돌봄서비스

- 83 안보령 • 3.3과 함께 다시 찾은 평화

- 87 엄상욱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부침개

- 91 윤신영 • 돌보미 선생님은 나의 롤모델

- 96 이미림 • 아이 한 명에서 다섯 명이 되기까지

- 101 최창범 • 돌보미 선생님 덕에 돈독해진 가족 사랑

- 105 황인아 • 눈물을 희망으로 바꿔준 돌보미 선생님

아이돌보미

- 109 김명희 • 귀한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 113 김영남 •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116 김윤경(논산) • 나는 행복한 아이돌보미입니다

- 121 김윤경(제주) • 나는 쌍둥이의 인생 첫 선생님!

- 125 박성진 • 나 편하자고 그만둘 수는 없지!

- 129 박승춘 • 나의 행복은 현재진행형

- 134 박정숙 • 그 집의 쉬어가는 나무 그늘이자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

- 139 선우현정 • 슬기로운 아이돌보미 생활

- 144 손경애 • 아이들은 또 하나의 세상

- 148 이미옥 • 봄날에 꽃을 기르는 나

종사자

- 153 서경란 • 내 인생의 황금기

- 157 이세빈 • 사회인으로서의 1년

- 161 황소정 • 새로운 도전과 소망



직장맘 23년을 지켜준 아이돌봄서비스



권 선 화

김포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가족이 지금의 모습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면 답은 “아니다.”이다. 아들 셋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애국가라고 감탄한다. 그 이면에는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공감의 전제되어 있을 것이다.

첫아이와 시험관기술로 뒤늦게 얻은 쌍둥이는 7살 터울로, 쌍둥이를 키우는 시간은 육아의 고단함도 잠시 잊을 만큼 귀하고 소중했다. 그러나 쌍둥이 육아는 두 배, 아니 세 배나 힘든 일이다. 13년째 육아와 유, 초, 중등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셋, 23년차 육아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 이야기는 세 분의 다른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분들 모두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세 아들의 또 다른 가족이다.

첫째의 돌이 다가왔을 때, 90일간의 출산휴가가 끝나가는 무렵이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다. 11개월 된 아기는 분유는 전혀 입에 대지 않고 모유만 먹는 건강한 아이였다. 그때 첫 번째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

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처음 만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조연순 선생님에게나 우리 부부에게나 낯선 일이었다. 뉴스에서 들리는 영유아 어린이집, 가정돌봄 선생님의 폭언, 폭행 등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지만, 돌보미 선생님의 보살핌을 지켜보면서 불안감과 불신은 안정감과 신뢰로 금세 바뀌어갔다.

직장맘으로서 가장 아쉬운 것은 아이와 떨어져 지내며 추억을 함께 쌓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연순 선생님은 아이의 하루 활동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셔서 나를 안도하게 해주셨다. 혈육에게도 하기 힘든 보살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하루하루를 꼼꼼히 기록한 성장일지는 직장맘에게 큰 위안과 안정이 되었다. ‘영아종일제’로 시작했던 돌봄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시간제’로 이어졌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는 하원하면서 온갖 장난감과 마실 물, 간식을 챙겨 야외활동 놀이를 빼놓지 않으셨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간 출산과 육아, 직장 복귀 등으로 미뤄두었던 박사 학위 논문까지 집중해서 완성하여 긴긴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부부는 안심하고 바깥일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올바른 심성과 인성을 갖추는 것이 돌봄과 육아, 교육의 목적인다고 생각해왔는데 돌보미 선생님의 투철한 직업 정신과 아이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신 덕분에 건강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십 년이 넘는 인연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큰아이의 생일이나 입학식 등이 있을 때 잊지 않고 연락을 주시고, 우리 가족도 명절에 찾아 뵙고 소담소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두 번째 선생님은 큰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세 아이를 임신 중에 잃은 아픔을 뒤로 하고 7년 만에 찾아온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고, 백일잔치를 한 다음 날

처음 뵈게 되었다. 첫아이 때처럼 남편이 곁에서 지극 정성으로 많이 도와주었지만, 백일 동안 나도 모르게 많이 지쳐 있었던 모양이다. 쌍둥이를 맡아주실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가 많은 경험을 쌓으신, 특히 쌍둥이만 돌봐주신 허정자 선생님을 소개받게 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나이가 지긋하신 허정자 선생님은 경험과 경륜으로 쌍둥이는 물론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아이까지 온화한 봄볕처럼 품어주셨다. 우리 부부에게도 부모님 같았다. 선생님 덕분에 두 녀석이 마법처럼 동시에 잠을 자고, 입이 짧은 동이들이 분유와 이유식도 잘 먹게 되는 신기한 일이 매일 일어났다. 육아 휴직 기간인 2년 가까이 돌보미 선생님과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가족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시간을 되짚어보면 사진처럼 생생한 추억이 켜켜이 쌓여있음을 깨닫게 된다. 쌍둥이들이 첫 발걸음을 떼어 한두 걸음 뒤통거리다 폴짝 주저앉은 감격스러운 순간, 서툴게 젓가락질을 시작한 때, 처음으로 소변을 가리는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모습, 숫자와 글자를 읽어가는 아이에게 박수 치고 격려하던 때, 우리 동이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새겨가는 순간들을 허정자 선생님과 함께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워킹맘으로서 나의 경력을 긴 시간 동안 쉽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장거리 출·퇴근, 잦은 야근과 출장도 남편과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과 크나큰 배려로 수행할 수 있었고, '경단네' 전업주부로 지내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이 된 큰아이한테도 할머니처럼 따뜻하고 세심하게 마음 써주셨다. 초등학교가 된 첫째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돌보미 선생

님의 배려로 첫째와 나, 둘만의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할머니 같은 사랑으로 첫째의 마음도 늘 따뜻하게 살피보셨으며 내가 어려워하는 육아도 현명한 해결책으로 도움을 주시곤 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처럼 허정자 선생님과 예기치 않은 이별이 다가왔다. 동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잠시 휴가를 다녀오시겠다는 말씀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셨다.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체장암 판정을 받은 날,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셨다. 아픈 모습,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다. 우리 부부는 함께 주저앉았다. 며칠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뒤 선생님을 뵈러 갔다. 동이들은 오랜만에 뵈는 선생님이 낯선지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금세 품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병이 더 악화되지는 않고 항암치료도 잘 받고 계신다고 해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선생님의 건강이 허락되는 날이면 쌍둥이가 보고 싶다는 안부인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오셔서 잠깐 얼굴을 보며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다. 야위어 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헛헛해지지만, 아이들을 보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로 소개할 돌보미 선생님은 지금 동이들을 보살펴주시는 강선옥 선생님이다. 돌봄활동을 처음 시작하신다는 선생님을 뵈게 되면서 걱정과 염려, 설렘과 기대가 교차했다. 허정자 선생님의 빈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기우였다. 우리는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다. 허정자 선생님은 노련함이 빛나셨다면 강선옥 선생님은 열정이 돋보이신다. 돌봄시간을 놀이 활동으로 꽉 채워주시는 선생님 덕



민우(가명)와 함께한 4년, 오늘도 설렘 속에 집을 나선다



김 선 혜

용인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분에 등이는 놀이터에서도 신나게 뛰어놀고, 집에서도 각종 다양한 신체놀이 나 블록놀이, 보드게임, 재활용품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도구 만들기, 색종이 접기나 물감놀이 등을 한다. 퇴근 후 집에 오면둥이들은 신나게 놀아서 이마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곤 했다. 때로는 내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보드게임 등 놀이활동에 집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직장맘들이 힘든 순간 중 하나인 아이들이 아플 때에도 두 녀석을 동시에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보는 것을 거뜬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 나에게 둥이들이 먹은 식사와 간식의 양, 건강 상태나 놀이활동 등 특이사항이나 사소한 에피소드라도 항상 들려주신다. 이처럼 아이들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사춘기 첫째와 개구쟁이 일곱 살 둥이들인 삼 형제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상한 남편의 배려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셔서 나는 23년차 직장맘으로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돌보미 선생님들과의 좋은 인연 덕분에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었고, 세 아이들이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장기 우수 고객이라 자부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다섯이 아니라 여덟이다. 혹 더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직장맘의 빈자리를 든든히 채워주신 돌보미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돌봄은 곧 가족돌봄이라는 것을 오늘도 실감한다.

아이돌보미의 길을 걸으며 여러 아이들을 만났다. 모든 아이들이 내 가슴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4년째 돌보고 있는 민우(가명)는 나에게 빛나는 삶을 선사한 아이다. 처음 만났을 때 민우는 다섯 살이었는데, 어느새 여덟 살의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되었다.

2021년 3월,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색 옷을 차려입고 민우네 집을 찾았다. ‘민우는 어떤 아이일까?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 가슴은 설렘했다. 내가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아이는 TV 앞에 앉아 있었다. “민우야, 안녕!”이라고 먼저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눈도 맞추지 않았다.

부모가 모두 직장애 다녀서 외동인 아이는 외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외할머니는 “아이가 말이 거의 없어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다닌 적도 없고, 아무한테도 아이를 맡겨본 적이 없다며 불안해하셨다.

“처음 아이를 맡기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는 자녀 양육 경험은 물론 기관에서 돌봄활동과 교육활동을 했던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뒤 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러자 외할머니도 안심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민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주 3회,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어린 이집 하원부터 돌봄이 시작되었다,

“민우야, 안녕!”

내가 인사를 건네도 민우는 좀처럼 나를 보려 하지 않았다. 어찌다 눈을 맞춰도 1~2초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민우와 친해지기 위해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집 근처 공원을 손을 잡고 빙빙 돌았다.

“민우는 뭘 좋아해? 우리 그네 탈까? 싫으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자.”

이렇게 말해도 좀처럼 반응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간식 먹을까?”라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고, 간식을 먹을 때 “민우는 어떤 것을 좋아해?”라고 대화를 시도해도 무반응이었다.

민우는 태양계의 8개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줄줄이 외웠다. 아빠가 외우게 한 것 같았다. 민우는 8개 행성 이름만 읊조릴 뿐 다른 말은 없었다.

나는 민우가 행성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 때 “수성은 어떤 별이야? 금성은?” 하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우는 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이건 수성, 금성, 지구…”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먼저 공감을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감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아이와의 사이에 감정 교류가 없다면 대화의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나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민우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했다. 책 읽어주기, 같이 놀아주기, 동요 함께 부르기, 색종이 접기, 장난감 만들기…. 그러나 민우는 잠시 관심을 보일 뿐이었고, 어느새 행성 이름을 나열하고 있었다. 민우와 조금 친근한 시간은 하원 때 차에서 내려 손을 잡아줄 때와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줄 때뿐이었다. 말을 걸면 대답 대신 떼쓰듯 몸부림치는 일이 반복되었고, 눈을 맞추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보였다.

직장에서 퇴근해 귀가한 민우 엄마한테 조심스레 돌봄 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눈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동차놀이 같은 한 가지 놀이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리, 특히 TV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내 이야기를 듣고 민우 엄마는 크게 당황했다. 나는 그동안 아이에게서 발견한 특이행동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눈맞춤, 놀이활동 시 한 가지 놀이에만 몰입하는 행동 등 특이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행성 이름의 나열, 둥근 모양만 나열하기, 장난감 자동차만 한 줄로 세우기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특히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동차 바퀴만 응시해요.”

자폐 스펙트럼 의심이 가는 행동들이다. 나는 전문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시간을 더 늦추게 되면 불안한 행동이 이어지면서 친구들과의 놀이활동에서 위축될 수 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대인관계 형성은 물론 학습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우 엄마는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밖에 전혀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엄마의 반응에 나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권유했다.

1주일 뒤에 민우 엄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사이에 민우 엄마는 의사인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선생님, 저는 민우가 말이 좀 늦는 줄만 알았어요. 남자아이들이 언어발달이 좀 늦다고 해서 걱정을 안 했지요. 그런데 민우의 특이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언니도 전문기관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어요. 정말 쇼크였어요. 민우가 그런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어요.”

민우 엄마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전문기관에 민우를 데리고 갔다고 했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의 관점에서 결과를 알고 싶었다. 그래야 민우에게 맞춤식 돌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지를 보고 싶다고 하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나는 곧바로 민우에게 맞는 맞춤 돌봄을 시작했다. 민우가 집중하는 행성놀이를 일부만 수용하고 대근육, 소근육 활동 놀이를 병행했다. 또 민우가 자동차에 지나칠 정도로 몰입하는 예민한 반응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눈 맞추기. 먼저 “눈으로 말해요.”라고 한 뒤 “눈을 맞추며 하나, 둘, 셋, 우리 이것 해볼까?” 하면서 눈 맞추기를 끈질기게 시도했다. 그다음에는 이어 말하기. 산토끼, 깡충깡충, 강아지, 멍멍멍 등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단어를 따라하게 했다. 모두 쉽지 않았다. 눈 맞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쉬운 단어도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 나와 비할 수는 없겠지만 헬렌 켈러를 길러낸 설리번 선생님처럼 되기에는 어려움이 층층 계단이었다.

‘그래, 교육은 기다림이야. 고통 없이 좋은 결과가 어찌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나 자신을 추스르고 또 추슬렀다. 인내심을 발휘하여 아이가 좋아하는 색종이로 모빌 만들기, 볼링놀이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그 밖에도 ‘이거 해봐요!’라고 말해보기, 도미노 놀이를 하면서 함께

세워보기, 동요를 부르며 아이와 손잡고 율동하기, 얼굴에서 눈, 코, 입, 귀 찾아보기, 보고 싶은 책 찾아오기, 읽은 책 제자리에 꽂기, 휴지 가져오기, 쓰레기통에 버리기, 장난감 정리하기, 배변 가리기, 고양이 밥 주기 등 집 안에 있는 재료를 총동원해 놀이 위주의 학습을 이어갔다.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고,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우가 날 응시하는 것이 아닌가! 짧은 반응이었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날이 갈수록 민우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늘어갔고 민우는 나에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건 뭐예요?”, “휴지는 왜요?”, “혼자 오줌 놀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민우를 꼭 안아주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래, 민우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참 잘했어!”

민우는 이렇게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섰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께 정말 감사 드려요.”

어느 날 민우 엄마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결과는 나의 자폐 스펙트럼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행히 경계에 있다고 했다. 나는 민우 엄마에게 모두 힘을 모아 민우를 잘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의 치료가 꼭 필요하며 현 상황을 엄마가 수용하려는 마음자세가 선행되어야 아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후 틈틈이 근무한 학교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사례를 꾸준히 들려주었다. 아이의 상황을 확실히 인지한 민우 엄마는 나의 교육활동의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4년여. 그새 민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이제는 나와는 물론 부모님과도 눈 맞춤을 잘한다. “민우야!” 부르면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도움이 있어야 소변을 보던 아이가 지



흔들림 셋, 흔들린 나무가 숲을 이룬다



이 선 옥

서울시종로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흔들림 하나, 바닥을 친 후 올라가는 상승감

돌보미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일을 시작한다. 그냥 아이가 좋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사회 기여에 의미를 두기도 한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용자 가정과 면접을 3번 정도까지 하면, 연계가 확정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 연계 후 면접에서 불합격하거나 합격 후 단기 활동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면접 불합격과 활동 종료가 반복되면 선생님은 낙담하고 실의에 빠져 결국 퇴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돌보미 선생님을 돕기 위해 상담, 교육, 집단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3년간 면접 불합격과 단기 활동 종료가 잦아서 활동이 불안정한 A 돌보미 선생님이 계셨다. 개성이 강한 화장과 복장, 미소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 선생님의 첫인상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무서워!”라며 가까이 가지 않아서 이용자도 활동을 단기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표정한 얼굴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아이들한테 많이 웃어주고 있어요.”라며

금은 혼자서도 잘 해결한다.

길가 식물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공원에서 울고 있는 동생들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다독이기도 한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알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구나. 선생님이 가르쳐줄게. 궁금하면 언제든지 돌보미 선생님한테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봐.”라고 응대해준다. 그럼 아이는 신이 나서 내 품속으로 뛰어든다.

나는 기다림이야말로 교육의 미학이라 믿고 있다. 4년 가까이 아이와 함께 한 시간. 이 시간은 돌봄을 넘어 아이를 훌륭히 키워내고자 한 몸부림이었다.

아이는 믿어주고 지켜보는 만큼 성장한다고 한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는 엄마일 것이다. 그러나 엄마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다. 바로 나와 같은 돌보미 선생님이다. 돌보미 선생님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엄마의 역할을 잠시 위임받아 아이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열정 없는 돌봄은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끌어줄 수는 있다.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아이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만나면 잘 자라지만, 척박한 땅을 만나면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돌보미 선생님이 좋아요.”라고 말해주는 민우. 세계 국기를 열심히 그리고 “잘 그렸죠?” 하며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수도 이름을 알아요?”라고 묻는 민우. 모른다고 하면 지도에서 찾아서 나라와 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이 나서 알려준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산다고 한다. 아직 표현은 적고 행동은 다소 느리지만 나는 오늘도 예쁜 수선화꽃이 되고 싶어하는 민우를 만나러 설렘 속에 집을 나선다. 보람을 만끽하며, 삶의 의미와 환희, 존재의 의미를 만끽하며...

노력했지만 연계 성공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불합격 사유를 보았을 때 면접 준비와 돌봄활동 개선이 필요했다.

A 선생님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다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60시간 미만 활동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아이돌보미 이미지메이킹과 면접 스피치, 감성소통교육, 1:1 양육기술 코칭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 A 선생님의 화장과 복장이 가장 먼저 바뀌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얼어버려서 아무 말도 못하던 선생님이 “○○이가 이런 말을 하면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단다. 예쁜 말을 해주면 좋겠어.”라고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지난달에 열린 집담회에서 선생님이 모듈별 발표 시간에 발표자로 나섰다.

“저는 지난 3년간 면접을 열 번 이상 보았고, 월 활동 시간이 60시간을 넘지 못해 많이 힘들었어요. 그만두어야 하나 생각도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한 가정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이용자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따르고 있어 돌봄활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선생님의 돌봄활동이 안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미지도 바뀌고, 소통 능력 뿐만 아니라 돌봄활동 역량도 증진되었다. 선생님으로부터 “돌봄활동이 즐겁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대했던 일인지 가슴이 뭉클했다. 함께 자리한 동료들도 선생님께 응원의 말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환하게 미소 짓는 선생님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흔들림 돌,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돌보미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은 60대다. 삶을 지탱시켜준 굵고 단단한 생각들이 있다. 좀처럼 그 생각 프레임은 흔들리지 않는다. 프레임을 깨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B 돌보미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다. 이때 선생님은

함께 사는 딸이 선생님을 위해 챙기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동안 선생님은 온라인 교육, 회의, 서류 제출 등 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딸은 선생님의 온라인 교육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까지 빌려주었고, 금요일에 휴가를 내기도 했다. 그런 딸을 칭찬하면, 선생님은 “딸이 엄마를 돕는 건 당연하죠.”라고 했다. 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흔들려주기를 바랐다.

집담회에서 양육 코칭 실습을 할 때 칭찬 언어를 작성하고 아동-돌보미 역할놀이를 했다. 작성한 칭찬 언어로 말을 해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들어보도록 했다. 교육 후 B 선생님한테 작성한 칭찬 언어를 딸에게도 적용해보도록 격려했다. 영아들이 자라면서 언어를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듯이, 어른들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들어야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선생님 마음에 칭찬 언어가 뿌리내리면 돌봄 아동과 이용자, 그리고 선생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질 거라고 기대했다.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선생님이 소감을 얘기했을 때 놀랐다.

“저는 강의를 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다.

작년에 선생님이 센터에 방문했는데 먼저 밝은 얼굴로 말을 걸었다.

“이선옥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딸아이한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었어요.”

선생님이 딸에게 평생 몇 번밖에 못해준 칭찬이라고 한다. 평소에 돌보미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종종 해드렸던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더 좋아질 거예요.”라는 칭찬 언어가 나에게서 선생님이게로, 선생님이게서 딸에게로 이어지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달에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할세권’보다 든든한 돌봄세권



박미소

경남 양산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딸아이한테 선물도 해주고, 고맙다는 말도 해주었어요. 며칠 전에는 딸이 제게 용돈도 주더라고요.”

선생님은 수줍은 듯 얘기했다. 자녀에게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많이 친밀해졌다고 한다. 돌봄활동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선생님의 생각이 ‘당연함’에서 ‘고마움’으로 바뀌는 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도 커졌다.

흔들림 셋, 흔들린 나무가 숲을 이룬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5년간 아이돌봄 사례관리사로 돌보미 선생님들을 만났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해마다 선생님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 선생님들은 자기성찰, 아동양육 지식, 소통방법 등을 배우고, 다음에 만날 때 각자의 성공사례를 가져오셨다. 성공사례들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였는지 존경심이 느껴진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큰 나무 같다. 폭풍을 견뎌 후 단단히 뿌리를 내린 고목 같다. 선생님들이 흔들림을 잘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아이돌봄 사례관리사로서 내가 꿈꾸는 일이다. 돌보미 선생님이 해피메이커로서 아이들을 만나길 바란다. 매년 집담회 첫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첫마디를 댈 때, 선생님들의 눈빛에서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애쓰셨어요.”라는 말이 들린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에게 주는 공감과 위로가 느껴져서 가슴이 따뜻해진다.

우리 모두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흔들림의 순간들을 거치며 살아간다. 그 흔들림을 이겨낸 후, 나무들은 더 자라고 있고 마침내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행복한 아이돌봄이 있는 숲을 꿈꾸며 아이돌봄 사례관리사로 일하고 싶다.

‘할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 가까이에서 거주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요즘은 신도시, 숲세권, 학세권보다 더 좋은 게 ‘할세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터를 잡아 결혼까지 하게 된 나는 ‘할세권’과는 거리가 멀다. 20대 중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나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전업주부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사실 외벌이로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 현실에 로또 당첨만을 꿈꾸는 여느 30대 워킹맘 중 한 명이다.

2019년 무더운 여름에 아이를 출산하였다. 출산 후 3개월은 휴직하며 아기를 돌보고, 이후 4개월은 친정 부모님께 아기를 맡겼다. 하지만 드디어 막 8개월이 된 건지도 못하는 우리 아기를 처음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이 오고 말았다.

“8개월이면 충분히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겉으로는 이렇게 강한 엄마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아침 8시에 어린이집에 1등으로 등원하고, 저녁 6시에 꼴찌로 하원하는 만 0세 우리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분유 먹고 잠만 잤다. 틈틈이 어린이집 선생님께 업혀 어린이집 안을 구경하거나 형과 누나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였다.

시간이 흘러 걸음마를 시작하며 어느 정도 자아가 생기는 시기가 되었다. 4시에 어린이집 하원 벨이 울리자 아이가 자기 어린이집 가방을 갖고 오더라. 다른 원아들의 엄마가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 벨을 누르면 우리 아이가 가방을 메고 신발장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안 순간 엉엉 울음을 터뜨린다는 말을 선생님께 전해 듣고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워킹맘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아직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해가 질 때까지 혼자 원에 남아 있는 상황이 엄마도 미안했지만, 아이도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나 보다.

그날 이후 나는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등·하원 도우미를 구했다.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씩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부탁드렸다.

10시에 등원해서 16시에 하원하게 된 아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전보다는 밝아졌지만, 전문적인 유아돌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어서 그런지 등·하원 과정 외의 돌봄활동은 무리였던 것 같다. 하원 후 집에서 아이 혼자 놀도록 방치한 채 도우미분은 계속 핸드폰만 보는 상황을 우연히 목격했지만,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자위하며 쓴소리를 삼켰다.

결국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도우미분도 아이돌봄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본업인 노인 요양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다. 우리 아이의 첫 돌봄은 그렇게 종료되었다.

이후 다시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던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아이돌봄서비

스’를 알게 되었다. 정부 지원 서비스라 믿음이 가고 심지어 비용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여 곧바로 신청을 하였다.

아이와 관련된 서비스라 그런지 요청 사항, 면접 등의 과정이 세세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매칭된 분이 바로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해랑 선생님이다.

선생님과 첫 면접에서 아이돌봄에 대한 선생님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물론 선생님은 다년간 아이돌봄을 한 경험도 있으셨지만, 선생님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지금 생각해보니 무엇보다 선생님 본인의 자식들을 잘 키우셨기에 그 경험이 곧 자신감으로 표현된 것 같다.

또래보다 말이 조금 늦었던 우리 아이는 그동안 유튜브를 시청하며 등원 준비를 했지만, 이해랑 선생님과과는 단어카드를 공부하며 즐겁게 등원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하원 길에는 시원한 바람, 흙냄새, 꽃봉오리가 피고 지는 과정을 생생히 보고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약 두 달 동안 선생님의 등·하원 지도를 받던 중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몇 달간 쉬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서는 긴급하게 다른 선생님 두 분을 구해주셨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해랑 선생님께서 길을 잘 닦아놓아서 그런지 아이는 새로운 등·하원 선생님들과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잘 지냈고, 선생님들도 모두 너무 훌륭하셨다. 선생님들은 성향이나 연령대가 달라서 돌봄 방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아이 보육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고 좋은 영양분이 되는 방식으로 아이를 돌봐주셨다. (이 기회를 빌려 고생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다른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해랑 선생님을 비롯하여 세 분 선생님 모두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으며 맞벌이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마치 내가 아이돌봄서비스 서포터즈인 것처럼 주변에 홍보를 하고 다닌다.

이혜랑 선생님의 복귀 후 현재까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입학하였다. 아이가 커가면서 나 또한 선생님께 아이를 대하는 태도, 교육, 생활방식 등에 대해 조언을 받으며 엄마로서 성장하고 있다.

아이가 처음 내뱉은 단어 ‘택시’, 처음으로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말하던 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포크레인’을 보러 산책하던 날, 모든 날이 선생님과 함께였고 함께하지 않은 주말의 생활은 다음날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의 기쁨을 누린다.

또 아침부터 고열이 나 등원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리며 선생님께 급하게 종일 돌봄을 부탁드리던 날들... 워킹맘들은 아마 아이가 아플 때 제일 난감할 것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갑자기 등원을 못하던 시기에도 다행히 선생님이 계셔서 한시름 놓으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6살이 되어 회사 퇴근시간 맞춰 저녁 하원을 하여도 되지만, 단순 등·하원이 아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오후 하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하신 말씀 중 “이 아이 초등학교까지 잘 키워서 보내야지”라고 하신 적이 있다. 선생님 힘닿으시는 데까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지금처럼 봐주셨으면 하는 나만의 큰 소

망이 있다.

퇴근 후 선생님과 하는 대화 말미에 “선생님, 아프시지 말고 다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라며 진심이 담긴 우스갯소리를 종종 한다. 그만큼 선생님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며,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할세권’이 아닌 ‘돌봄세권’에 살며 아이를 건강하게 또 바르게 성장시키고, 더불어 엄마인 나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감사하며, 우리 아이의 제2의 엄마, 나에겐 오은영 박사님이신 이혜랑 선생님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육아서보다 큰 울림이 있는 우리 선생님



박서연

광주남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결혼 후, 2년 동안 2번의 자연유산과 시험관시술을 반복하며 아기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기였기에 나와 남편, 그리고 양가 집안에서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까지 숨죽여 지켜보기만 했다. 아기를 처음 안고 집으로 오던 날, 출산에 대한 안도감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기에, 남들은 힘들다던 신생아 육아가 나에게서는 즐거움이자 기쁨 그 자체였다. 남편 역시 육아에 적극 동참하여 도왔다. 우리 집은 이렇게 웃음이 끊기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아기가 85일 되던 날 새벽에 나는 복부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다. 24시간 육아에 전념해서일까? 아기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쓴 탓일까?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인터넷으로 '위염'을 검색해보았다. 그러나 검색 내용과는 다른 복부 통증 증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남편에게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으니 들어오라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일주일 후 병원에서 내원을 요청하였다.

“상급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입니다.”

하늘이 노래쳤고, 초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위를 전부 떼어내는 위 전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지?

수술만 끝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수술보다 힘든 항암치료가 시작되었다. 나는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아기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갓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외부 도움을 고려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때 남편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자고 하였다. 이 수기를 쓰게 된 이유는 앞서 감감하던 그 시절, 광주광역시 남구 사단법인 그루터기에서 박애경 돌보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 집과 친정집이 속한 행정구역이 달랐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부재 속에서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야 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뤘다. 돌보미 선생님과 첫 만남도 못하고 항암치료와 입원생활을 했기에, 어떤 분일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앞섰다.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 오신 날, 내게 별도의 문자를 보내주셨다.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신 모습이 한눈에 그려졌다. 병상에 누워, 그 메시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양육환경이 바뀌고 낮가림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아이와의 끊임없는 교감을 한 덕분에 우리 아기, 서진이는 선생님과 빠른 적응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친정엄마와 아빠도 몇십 년 만의 육아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었고,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 서진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아이의 모든 것을 활동일지에 기록하였고, 그 내용을 나뿐만 아니라 친정엄마와도 공유해주어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육아서보다 큰 울림이 있는 우리 선생님!

어느 날, 서진이가 고열이 난다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가 아프니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았다. 아픈 엄마라, 옆에 없는 엄마라 혼자 아파서 울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돌보미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서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는 건강하고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예요. 서진 엄마는 엄마 건강부터 생각해요. 스트레스는 좋지 않아요.”

선생님은 나를 안심시키며, 서진이가 점차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질 정도로 시시각각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이후에도 내가 놀라고 당황할 만한 일들에 대해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아이에게도 잘 적용해주었다. 아이의 고유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양육하는 모습은 책만 보고 육아를 생각했던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임신 중 읽었던 수많은 육아서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재미난 육아, 즐거운 육아, 신나는 육아를 통한 아이의 성장!

난 교육학 전공자이고, 연구원이었고, 교육현장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런데 박애경 선생님은 단순한 육아를 넘어서 교육 활동까지 준비해 오셨고, 장난감놀이를 할 때에도 아이의 발달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놀이를 준비해 오셨다. 집에 있는 물품만으로도 문화센터보다 더 성장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선생님은 매주 특별활동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끌어내었다. 고슴도치, 토끼, 애벌레 등이 나오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집에 있는 물품을 활용해서 각 동물의 특징을 함께 만드는 활동을 했다. 면봉과 고구마와 과일을 활용해서 고슴도치를 표현하는 활동에서는 서진이가 직접 면봉을 손에 집어 고구마에 꽂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천연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밀가루 반죽으로 한참을 재미있게 놀이 하며 말랑말랑 촉감을 느끼는 활동을 했다. 아이의 안전까지 고려한 학습도구를 선택하여, 아이가 즐겁게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나는 시도하지도 못할 활동도 진행해주셨다. 거실에서 아이 욕조에 딸기와 두부를 활용한 촉감놀이, 불린 미역과 콩, 비눗방울을 활용한 촉감놀이 등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셨다. 서진이는 처음 느끼는 촉감에 낯설어 경계하였지만, 선생님이 시도하는 모습을 한동안 관찰한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 다양한 촉감을 느껴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색종이와 풍선으로 다양한 동물과 식물, 사물을 수준급으로 만들어 오셔서, 서진이가 직접 써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도 하였다. 풍선으로 만들어

주신 꽃다발을 보행기에 매달고 달려오는 아이의 얼굴에 웃음 함박꽃이 피었다. 특히, 색종이를 찢고 구겨보며 서진이가 온 손가락을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색종이로 서진이 침대를 꾸며주어서, 친정엄마는 침대에서도 서진이와 색종이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잠든다고 하셨다.

그당시 입원해 있던 내가 이 모든 활동을 어





떻게 다 본 것처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선생님이 서진이의 모든 활동을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기록으로 보내준 덕분이다. 엄마와 떨어져 있지만, 아이의 발달 상황과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보내준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컸구나,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구나, 아이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구나.’라며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정신력도 많이 약해지고 아이를 안을 수도 없이 살이 빠져 엄마로서 자신감도 떨어지는 중에 선생님의 이런 활동 메시지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박애경 선생님은 서진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의 성장에도 함께 해주신 분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책과 행정복지 중 내가 가장 크게 감동한 것이 ‘아이 돌봄서비스’이고, 이 정책과 복지는 대한민국의 예비 부모님들, 육아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육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열려 있으니 말이다.

끝으로, 박애경 선생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서진이의 어린 시절 잠시 스치는 선생님이 아니시고, 서진이의 인생 기틀을 형성해주신 참스승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항암치료보다 더 중요한 마음치료를 해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에 힘쓰겠습니다.”

돌보미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야!



이은희

전북 정읍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세 아이의 엄마다. 딸과 아들을 낳고 5개월 된 막둥이를 입양하여 힘들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막둥이를 입양하게 된 것은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컸기 때문이다. 봉사자가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도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탈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을 듬뿍 주면 사랑을 베푸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끈질기게 가족들을 설득하여 막둥이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여러 병원과 요양병원을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 2월, 림프종(혈액암) 4기로 시한부 10개월 선고를 받았다. 의사선생님은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상태라며,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막둥이가 눈에 밟혔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발 막둥이가 더 크면 죽게 해주세요. 막둥이는 이미 엄마를 잃은 경험이

있는데 두 번째 엄마인 저마저 이렇게 일찍 잃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당시 임상실험 중이던 신약을 나에게 써보기로 했다. 그 약은 아직 사람에게 투약한 적이 없었다. 내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투약 대상자가 된 것이다. 나는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신약을 이용한 치료에 임했다.

나는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24시간 간호를 전담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급하게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서울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그때 딸은 고1, 아들은 중1, 막둥이는 겨우 3살이었다. 세 아이 모두 엄마의 돌봄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치료와 회복에 긴 시간이 걸렸고, 도움을 주시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지치셔서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 물론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도 모두 불안하고 힘들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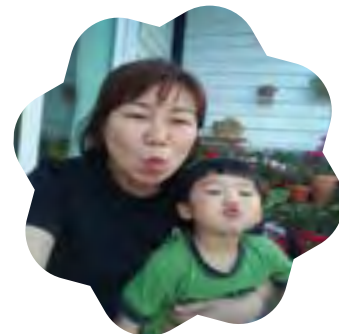
우리 가족 모두에게 돌봄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치료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소망이 희망이 되었다. 사실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었지만, 첫째

와 둘째가 12세 이상이었어서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중증질환인 암 진단을 받고 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나는 항암치료가 진행되면서 육아와 살림, 모두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엄마 같은 돌보미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했다. 좋은 선생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에게는 암치료 과정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는 것이 더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데, 정말 엄마 같은 좋은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서 마음이 환해졌고, 감사가 넘쳤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치료만 잘 받으면 되니까...



모든 엄마들의 소원은 자녀를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아닐까? 나 역시 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으로 아무 흠도 없이 잘 키우고 싶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내 손으로 육아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리 집은 정음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통이 불편했다. 선생님 두 분은 교통 문제로 곧 그만두시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신 선생님은 차로 30분이 넘는 거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달려와주셨다. 그것도 늘 환한 얼굴로~!

진심으로 선생님이 나에게 천사 같았고 때로는 친정어머니 같았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에겐 따뜻한 정이 넘치는 엄마 같았다. 선생님이 처음 오시던 날이 지금도 기억난다. 막둥이는 낯가림이 심한 아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야!” 하고 부르며 들어오셨다. 낯선 사람을 보면 엄마 뒤로 숨는 막둥이가 거리낌없이 선생님한테 다가갔고, 선생님과 잘 놀았다. 선생님과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필요했고, 너무 좋았고, 잘 맞았다. 우리 막둥이에게 엄마 역할을 대신해주셔서 막둥이도 선생님을 잘 따르고 좋아했다.

입양아인 막둥이는 사람들에게 선뜻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막둥



이용자 우수사례

아이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정 창 민

천안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결혼한 지 5년 만에 시험관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을 기다릴 때 간절했던 마음만큼 기쁨도 컸지만, 막상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막막함이 밀려들었다. 쌍둥이를 낳아서 키운 부부들의 무용담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시 우리 부부가 살던 11평 집은 각종 육아장비나 쌍둥이 아기에게 필요한 짐을 놓기엔 너무 비좁아서 집값이 저렴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출산 예정일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천안으로 이사를 갔다.

임신할 때부터 다니던 병원에서 연결해준 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기들이 주수에 비해 너무 성장하지 않았고, 아내는 조산기까지 있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예정일보다 2달 먼저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제왕절개술을 통해 얻었다. 1kg을 간신히 넘긴 아기들은 두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냈고, 우리 부부는 병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보내주는 사진을 보며 아기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키워가며 아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아기들을 기다리던 그 두 달의 시간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고요하고 평온했

이가 돌보미 선생님을 엄마처럼 잘 따른다. 막둥이에게 가족 중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엄마가 제일 좋고, 그다음이 아빠, 그다음이 선생님이야. 누나와 형은 선생님 다음이고! 선생님도 우리 가족이야!”

막둥이는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선생님 뚝을 따로 남겨둔다. 가족그림을 그릴 땐 선생님도 함께 그리고, 선생님 선물도 꼭 챙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흐뭇하다. 내가 막둥이에게 엄마가 되어주었듯이, 선생님도 막둥이에게 엄마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따스한 가족이 되어주셨다.

선생님이 하루에 두 시간씩 와주셔서 그 시간 동안 나는 마음 편히, 충분히 쉴 수 있었다. 그리고 항암치료가 있는 날에는 종일 돌봄서비스를 해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치료가 잘되어 죽지 않고 기적처럼 살아났다. 지금은 약도 먹지 않고 재활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세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생님과 우리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암도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흔히 육아를 전쟁 같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가 살아서 육아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이고 감사다!”

나처럼 육아가 힘든 시기에 돌보미 선생님과 짐을 나누어 지고, 잘 감당해내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이 세상의 엄마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며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땅에 별처럼 빛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엄마들, 그리고 따스한 돌보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던,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다.

집에 온 아기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기 시작했고, 우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인지 몰라 기저귀를 갈아줬다가 분유도 타줬다가 달래기를 반복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부모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주파수가 있는지, 아기들의 울음이 커지고 길어질수록 엄마, 아빠는 더욱 예민해져서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미루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밤에는 잠을 2~3시간도 깊이 자지 못했고, 좀비 상태로 뜨는 해를 맞이하는 날이 이어졌다. 아기들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부모 책임인 것 같아서 퇴원해서 집에 오면 한없는 사랑으로 돌봐주려 했던 초심은 수면부족과 체력적 한계에 부딪쳐 급기야 아기에게도 짜증과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아빠들이 아기가 어릴 때에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아내가 혼자 쌍둥이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고 천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아빠들이 피난처로 여기는 직장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예방접종이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온종일, 24시간 동안 늘 함께 있었다. 스트레스가 가득 찬 두 사람이 계속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들의 낮잠 시간에 앞집에서 공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렵게 재운 아기들이 깨면 내 휴식시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잔뜩 예민해져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7살쯤 된 큰딸과 4살쯤 된 아들 쌍둥이와 함께 서 있던 아이들 엄마가 나를 보더니 몹시 미안해하며 며칠 후 앞집으로 이사 올 예정인데 리모델링공사 중이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는 쌍둥이를 본 순간, 전쟁 중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다.

“어머, 저희도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 순간, 세 아이의 엄마와 나는 쌍둥이라는 단어 하나로 서로에게 깊은 동지애를 느낀 것 같았다. 그리고 앞집 쌍둥이 엄마는 쌍둥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쌍둥이 아빠인 나를 위로해주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권유했다.

집에 들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출산 전 수많은 사이트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된 우리 부부는 다음 날 각자 아기를 하나씩 안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곧이어 돌보미 선생님이 오셨다. 돌보미 선생님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셨고, 앞집 쌍둥이를 아침저녁으로 돌봐주시는데 중간에 빈 시간에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것이다.

우리 부부의 육아 역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과 후로 나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부부의 삶은 확 달라졌다. 난 육아를 하면서 아기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고귀한 ‘수갑’이라고 생각했다.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내 표현을 200퍼센트 공감할 것이다. 아기를 한 명 보면 나의 두 손은 항상 아기를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두 아기를 엄마, 아빠가 각각 돌봐야 하니 엄마, 아빠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특히 신생아 때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기만 해도 집 안이 떠나갈 정도로 울기 때문에 항상 안고 있어야 했다.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찬물에 밥을 말아 후다닥 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돌보미 선생님이 아기

를 봐준 덕분에 여유롭게 씻을 수 있었고, 이발소와 미용실도 다녀올 수 있었다. 비록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의 다년간 경험으로 쌓인 육아 노하우는 아기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난 아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기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기저귀 값도 계속 들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육아를 하면서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 돌보미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렇게 해서 2023년도 총매출이 1억이 넘게 되었다. 올해부터 아내는 출산과 육아로 약해진 체력과 몸을 되살리기 위해 PT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주 3회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고 있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개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글쓰기 대회에 응모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삶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몸소 겪으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글에서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가 좋은 아이돌보미를 확보하여 준공무원처럼 관리하며, 평가 등급에 따라 급여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을 몰라서 출산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앞서 서술한 수많은 어려움을 굳이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선택

한 용기있는 부부들을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시대에 아이를 낳아주어 고맙다. 우리 함께 키우자.”고 손을 내미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금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선정 대상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출산율 고민 중인 신혼부부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쌍둥이 엄마를 일으켜준 아이돌봄서비스



황지혜

대구북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내 소개부터 하겠다. 이름은 황지혜, 2023년 12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했고,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쌍둥이는 29주 2일 만에 세상에 나왔고, 1.3kg, 0.7kg, 1.1kg으로 태어났다. 작지만 강한 울음을 울며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태어난 지 147일이 되었다. 첫째는 62일, 둘째는 120일, 셋째는 47일 만에 퇴원했고, 순서대로 5.8kg, 4.0kg, 5.6kg이 되었다.

대구 시민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니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셨을 것이다. 나는 고위험 산모 중에서도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로 분류되어 임신 초기부터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대구 동산병원을 다니게 되었다. 임신 26주에 둘째의 심장박동 이상으로 동산병원 고위험 산모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일주일간의 입원 후, 아기들도 여럿이고 작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 더 좋은 시설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보유한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앰블런스를 타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주를 더 품어 2023년 12월 12일, 오전에 갑자기 떨어지는 태아 심박수

때문에 응급제왕절개술로 세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 4일 뒤, 아기들을 신생아중환자실에 남겨둔 채 나만 퇴원했다. 제왕절개술로 아픈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해 할머니처럼 구부정하게 걸으면서도, 모유가 필요한 아기들을 위해 밤낮없이 유축하여 퇴원 이튿날부터 대구에서 서울로 모유를 날랐다. 미숙아의 경우 장이 미성숙해서 시판 분유를 먹일 경우 쉽게 게워내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 나는 아기들을 위해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모유를 유축했다. 모유를 전달하면서 면회를 할 때, 아기들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진 적도 있었고, 살이 오르긴커녕 오히려 빠진 적도 있었으며, 실망할 만큼 호전되지 않은 적도 많았지만 엄마이기에 어금니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가 약해지면 누가 아기들을 책임지겠는가? 주저앉아 울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으며 나는 단단해졌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아기가 퇴원하는 120일 동안 서울대학교 신생아중환자실에 모유를 전달했다. 그때 ktx 비용만 500만원 넘게 들었다. 물론 모유는 지금도 밤낮없이 유축하고 있다.

그 덕분이었는지, 아기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하나둘 퇴원하여 집으로 왔다. 손바닥만 했던 아기가 팔뚝만 해져 퇴원하던 순간... 너무나도 가녀려 첫 면회 때는 만져보지도 못했던 아기에게 연결된 심장박동 센서, 산소포화도 센서 등을 모두 떼어내면서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라는 의료진의 말에 세상의 모든 신에게 감사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모성애를 진하게 느끼며 나에게 숙제 같은 이 아기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너무나도 추웠던 2023년 겨울, 대구에서 서울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세쌍둥이 면회를 다니고, 잠도 안 자고 유축해 모유를 전달하던 산모에게 산후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산모가 신생아 셋

을 홀로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다. 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시간 맞춰 5종류의 약을 챙겨 먹여야 하는 신생아 셋을 돌보는 육아는 전쟁과도 같았다.

나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9년간의 학위 기간을 거쳐 박사학위를 받고 생물학과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학위 기간 동안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수백 번 자퇴하고 싶은 박사학위 기간이지만, 견뎌낸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라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설 것이며, 학위 기간 동안의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스스로 이겨낸 인내의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세쌍둥이 신생아 육아는 그 시간이 나에게 준 단단함으로 버티려 해도 점점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다다르고 있었다.

잠을 못 자니 하늘이 핑 돌고 갑자기 주저앉을 만큼 어지러웠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코피와 동시에 우는 아기들을 달래려 두 명을 한꺼번에 안아야 할 때마다 심해지는 허리통증은 더 이상은 현상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렸다. 아기를 안아줄 때면 허리를 숙이지 못해 스쿼트 자세로 무릎을 굽혀 안아주어야 했고, 그마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아기들을 멍하니 바라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픈 몸과 때맞춰 찾아온 산후우울증으로 어느 순간 아기들을 부정하게 되었다. 이 아기들이 내 아기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 아기들을 재워 놓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아를 도와주러 온 친정엄마가 아기 셋이 울고 있는데 수영 시간이 되어 가야 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셨다. 그리고 던진 한마디...

“손자들도 소중하지만 내 건강을 지키는 게 먼저야. 그래야 돈을 벌어 용돈

도 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고, 오래도록 아기들을 보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아기들이 건강해진다면 내 몸은 부서져도 좋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육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엄마인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더 아끼고 관리하여 더 단단해지고 멋진 엄마로 거듭 나자는 생각을 했다. 세쌍둥이 육아를 도와줄 베이비시터를 알아보았는데, 비용이 월 700만원이었다. 엄청난 비용에 절충을 해보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고 검색하고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던 날,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건넨 말이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생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90일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았다. 부랴부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고, 그날 바로 복지소에서 소득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업로드하여 소득판정을 받고, 가족센터에 전화해 “세쌍둥이라 양육공백이 불가피하니 선생님 배정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비록 전화통화였지만 나는 담당자의 배려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물어보고 수소문해서 당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그 마음을...

같은 돌보미 선생님과 안정적으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정기돌봄은 4주간의 기다림 끝에 연결이 되어 좋은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기돌봄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일시연계를 통해서 AI가 배정해주는 맞춤형 선생님과 함께 육아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돌봄을 이용하기 전에는 40시간 이상 뜬눈으로 육아를 하던 내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아기가 나를 죽이러 온 악마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도



와주시니 나 또한 육아가 노동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아기가 자라는 순간순간을 눈에 담을 수 있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돌보미 선생님과 쌓인 신뢰 덕분에인지 낮에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잠깐씩 낮잠을 자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니 저녁이며 새벽에 진행되는 아기 케어도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하고 있다. 이제야 이렇게 예쁜 우리 아기들이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아기 수유도 트림도 목욕도 그저 빨리 해내고 다음 아기를 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순간 아기가 내는 웅얼이, 눈맞춤, 커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던 세쌍둥이 엄마에게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어 돌보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어 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자녀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키울 것이다.

○○이가 맘에 들어서 오래오래 해보려고!



심진숙

전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비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째다.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해졌다. 게다가 내가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아이돌봄서비스제도를 알게 되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첫번째 연계된 가정에서 영아종일제로 활동하면서 돌봄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일했다. 그러던 중 새로 연계된 ○○이네는 부모님 두 분이 청각장애를 가진 코다 가정이다. 이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두 시간의 돌봄을 원했다. 마침 영아종일제를 하던 가정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 ○○이가 한 말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게 된 것 같다.

“선생님도 금방 우리 집 안 오실 거죠?”

무슨 말인가 싶어 사정을 들어보니 그동안 돌보미 선생님이 자주 바뀌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도 새로 온 돌보미 선생님에 대해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이가 맘에 들어서 오래오래 해보려고!”

내 대답에 ○○이가 밝게 웃었다. 그 웃음으로 인해 난 ○○이네를 8년째 다니고 있다. 다른 가정과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 부모님과 의사소통은 ‘활동수첩’을 이용해 글로 써서 하거나 ○○이를 통해서 한다. ○○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어를 아주 잘했고, 동생인 △△는 수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는 한글도 모르고 수어도 할 줄 모르니 언니인 ○○이를 통해 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와 함께 ○○이에게 수어도 조금씩 배우고, 책도 읽어주다 보니 정이 듬뿍 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돌봄활동을 할까 생각하다 이용자께 수학문제집을 구해 달라고 해서 ○○이에게 풀게 하고, △△에게는 한글을 가르쳤다. 우리 아이들 학습지도를 하던 때도 까마득해서 초등학교 문제집을 연습하고 와서 가르쳤다. 그러자 이용자는 나를 학습 선생님이로 여기는 것 같았다. 소통이 잘 안 되니 학습지 선생님을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려도 문자를 주고받을 때면 언제나 학습 선생님이라고 했다. ○○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문제가 어려워져서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집에 와서 아들딸에게 물어서 해결하기도 했다.

한번은 동생 △△의 돌봄을 가려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인 ○○이가 올면서 전화를 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언제 오세요?”

“저녁 먹고 바로 갈 거야.”

“지금 바로 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저 혼자 들어가면 엄마가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려고요.”

“○○이 지금 어디에 있니?”

“아파트 놀이터요.”

“그래, 지금 갈게.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을 챙겨 ○○이네 아파트 놀이터로 달려갔다. ○○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얼마나 맘이 아팠을까 싶어서 꼭 안아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전화해준 것도 참 고마웠다.

○○이를 다독여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다. ○○이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격검사에서 우울 지수가 높게 나왔단다. 중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가정과 다른 자기 집 형편, 동생 △△가 잘못해도 ○○이를 통해서 훈육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단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연락해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했단다. 어머니는 창피하게 그런 일로 상담실에 갔냐며 혼내기만 하고 자기 마음은 헤아려주지 않아서 서운하다고 했다. 어린 ○○이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안타까웠고 또 대견스러웠다. 나는 ○○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었다.

지금은 △△만 돌봄을 하고 있지만 ○○이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 고충을 들어주며 소통창구 역할도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 친구들의 부탁으로 그림을 그려줄 정도의 실력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수학문제를 풀다가도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려준 아이스크림 수박바 그림을 지금도 아이돌봄 수첩에 붙여놓았다. ○○이는 빙긋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제 그림을 갖고 계시네요.”라며 좋아한다. 며칠 전에는 ○○이에게 사인도 해달라고 했다. 나는 ○○이에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큼 독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틈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어 내면의 지식을 쌓아서 다른 사람의 글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해준다.

△△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받아쓰기를 못하면 받아쓰기를 집중해서 지도하고, 구구단을 배울 때면 숙제를 따로 내주어 외우게 했다. 매번 설명해주고 다음에 가서 확인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인가 했다. 저학년 때에는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요, 싫어!”라고 외치며 눈물부터 흘렸다. 그럴 때면 “그럼 이거 할까? 아니면 저거 할까?” 물어도 싫다고만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가 “선생님, △△는 ‘싫어 병’에 걸렸나 봐요.”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도 이리저리 달래보지만 △△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나는 이용자에게 수학문제집을 구해 달라고 해서 기초부터 꾸준히 가르쳤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며 채근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는 고학년이 되자 성적이 올랐고 학습 능력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아이들 물건을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자 담임선생님이 전화연락을 했고,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고민 상담을 했다. 나는 예전에 상담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와 대화를 시도했다. △△에게 다른 친구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훔치기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어렸을 때 잘못된 행동이 커서도 문제가 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줬다. 그래도 △△의 행동이 바뀌지 않자, 내가 아는 지인이 경찰인데 연락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가 확 변했다. 또 그러냐고 슬그머니 물었더니 “말도 안 돼요. 전혀 안 해요.”라며 펄쩍 뛰었다. 이용자도 고마워하는 걸 보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무한 능력을 끌어내면 더욱 보람이 크다.

“선생님, 제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가 수학문제를 풀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나는 △△가 쓱쓱 연필 소리를 내며 수학문제를 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코다 가정에 도움을 주어 더욱 뿌듯하다. 우울 지수가 높았던 ○○이도 내게 솔직하게 사생활을 털어놓는다. 사춘기인 ○○이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소망한다.

아이돌보미가 되길 정말 잘했다. 13년째 활동하는 동안 손자 둘이 태어났다. 손자를 돌볼 때에도 딸은 엄마의 육아방식을 존중하며 전문가라고 추켜세운다. 1년에 한 번 받는 보수교육도 많은 도움이 된다.

가끔 돌봄활동 첫해에 만난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하며 전화한다. 그럴 때면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아이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이와 △△를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나의 삶을 더욱 값진 삶으로 승화시켜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전한다.



찬란한 봄날의 시작



이 명 자

속초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이 되면 아이돌보미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2016년 봄의 그날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 당시 나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암투병을 하며 얻은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영랑호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으며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렇게 해서 그 찬란한 봄날에 나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듬해 3월 다시 벚꽃이 필 무렵, 왕복 2시간 거리의 강릉을 매일 오가며 8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고 실습을 거쳐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몇몇 가정에서 잠시 활동한 후 어린이날 전날에 연계를 받고 예림이네를 방문하게 되었다. 10:00~20:00까지 돌봄시간을 확인한 후, 부모 없이 첫 어린이날을 맞게 된 아기가 안쓰러워서 작은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다. 이제 겨우 생후 8개월 된

예림이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 나는 평일 오후와 주말 연계로 돌봄을 하게 되었다. 예림이 부모님은 장사를 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이유식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한 후 아이를 위해 밥을 으개어 먹이고, 사과를 수저로 끊어 즙을 내어 먹이고, 토마토를 짓이겨 먹이기도 했다. 그러자 모성 본능이 되살아났고, 몸은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보람되고 행복했다. 예림이는 자라면서 편식을 하지 않았다. 특히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같은 채소를 거부감 없이 먹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고마워하신다.

“아이가 채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먹는지 신기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긴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면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춰서 웃음을 전해주고, 간식을 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도 드시라며 입에 넣어주어 감동과 함께 웃음을 선사했다. 아이의 아주 작은 몸짓,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웃음 치유제 같았다. 평일에는 집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종료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다. 하지만 주말에는 어머니가 예림이를 데리고 일찍 시장에 나갔고, 내가 시장에 가서 예림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 종일 돌봄을 하다가 예림이를 씻겨서 다시 업고 시간 맞춰 시장에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뭔지 모를 희열이 느껴졌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예림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매일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다. 여름이면 대야에 물을 받아 물장구를 치고, 비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쓴 채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가을이 오면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밟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눈 오는 겨울이면 눈을 맞으

며 눈사람을 만들면서 예림이는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 세 살이 되고, 네 살이 되었다.

시장의 다른 가게에서 장사하는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면 꼭 인사를 하셨다.

“선생님께서 우리 예림이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림이 할머니는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다른 할머니들께 “우리 예림이 선생님이에요~!”라며 칭찬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홍보도 해주셨다.

예림이의 동생이 태어날 무렵, 8개월 정도 다른 선생님의 돌봄을 거쳐 내가 다시 예림이와 동생을 돌보게 되었다. 그때 오십견이 와서 예림이 동생을 업어 줄 때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기를 업을 때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몸이 약한 내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쉬지 않고 활동했다. 주말마다 돌봄 종료시간에 맞춰 동생은 업고 예림이는 손을 잡고서 시장으로 갔다. 그렇게 사계절이 몇 번 바뀔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지냈다.

첫 만남 이후에도 어린이날이 돌아오면 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날 행사장으로 가서 부모님만큼은 못 하겠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정말 열심히 놀아주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토요일, 일요일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돌보미인 내가 자랑스럽고, 수고했다며 스스로 토닥토닥해준다. 생후 8개월 때 만났던 예림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처럼 대견하고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다.

작년에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인 딸은 내가 암수술 후 우울하게 지낼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께도 아이돌보미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 딸아이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야말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지금 임신 3개월 차가 된 자신도 아이를 낳으면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이다. 젊은 부부들이 양육의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든 아이돌보미들의 수고가 커다란 울림이 되어 아이돌봄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큰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활동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아이들 연령대에 맞춰 놀잇감을 준비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여 꼭 가져가서 읽어준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집에 책이 많아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는 것을 좋아한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활동은 잠시도 눈을 땔 수 없기에 온몸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도 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대화를 잘하고, 특히 이용자와 진실된 마음으로 관계 형성을 잘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 계속 연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아서 아이돌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단단히 다지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나도 성장할 수 있었다.

유방암 수술 후 불안하게 지내던 나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제2의 삶을 힘차게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밝은 에너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면역력이고 긍정 에너지다. 나는 더 이상 혹시 암이 재발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다섯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다섯 아이들이 성향은 각각 달라도, 모두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러 힘차게 출발한다.

쌍둥이와 함께 커가는 나를 찾아서



이연향

순창군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2021년 10월,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하며 4형제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아이 한 명 낳기도 꺼리는 시대에 이런 애국자가 있다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정을 방문했다. 아이 엄마는 지쳐 있고 살림은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30대 후반의 엄마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다. 가끔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준 덕분에 4형제를 키울 수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골절로 인해 당분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큰아들이 7살, 작은아들이 4살, 그리고 정말 똑같이 생긴 생후 8개월 된 쌍둥이 남자아이였다.

아이 엄마와 인사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아들 둘만 있어도 전쟁터라고 하던데 쌍둥이까지 4명의 아들이라니...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 둘을 낳고 그만 낳아야지 하면서도 예쁜 딸을 갖고 싶은 욕심에 또다시 임신했는데, 아들 쌍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며 초음파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없는 네가 외롭지 말라고 많이 주셨나 보다. 키울 때는 힘들어도 아

이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클 거야.’ 이제는 저도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며 밝게 웃는 아이 엄마를 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3시간 정도 쌍둥이와 시간을 보내고 다음 약속을 잡은 뒤, 그 집에서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을 했다. 아직은 손이 많이 가는 7살, 4살,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느라 지쳐 있을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부담도 되지만 쌍둥이와 함께 커갈 나를 상상해보았다.

7살인 첫째는 매우 활동적이어서 야구, 축구,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좋아했고, 4살인 둘째는 그림 그리기, 가위로 종이 자르기 같은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편이었다. 쌍둥이 아기들은 이제 막 기어다니며 아무거나 만지고 입에 넣는 단계여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처음에는 식사, 목욕, 놀아주기 등 쌍둥이를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했다. 그러다가 동생들에게 치여서 첫째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엄마의 고민을 들었다. 동생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진 첫째가 안쓰러워 보였다. 어린 동생들 때문이라 하지만, 여전히 어린 일곱 살의 나이에 맞는 엄마와의 관계형성이 필요해 보였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어린 쌍둥이가 걱정되겠지만 이제는 저와 친해져 낮가림도 없으니 첫째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시간을 내서 첫째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 운동, 산책을 하거나 함께 음료수라도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쌍둥이 때문에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니 첫째와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우리의 계획은 대성공이었다. 2시간쯤 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보낸 뒤, 두

손에 빵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와 “선생님 선물이에요!”라며 건네던 첫째의 밝은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첫째가 이토록 좋아할 줄은 몰랐다. 엄마도 기뻐하며 말했다.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잠시 시간을 보내고 오니 저한테도 힐링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이후에도 엄마가 틈틈이 육아에서 벗어나 첫째, 둘째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하루는 엄마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첫째가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사실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가족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쌍둥이를 데리고 여행이라니... 고생길이 뻔한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는 엄마를 위해 내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괜찮으시면 쌍둥이는 제가 봐줄 테니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세요. 쌍둥이와 함께 여행을 하는 건 아직은 어렵잖아요.”

엄마는 고마워하며 아이 아빠랑 상의해서 날짜를 잡겠다고 했다. 그래서 첫째의 희망대로 1년 만에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후에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족여행을 선물해주어나도 일에 보람을 느낀다.

하루는 아이 엄마가 취업공고문을 보여주었다. 은행에서 이것을 본 순간 눈을 땔 수가 없어서 복사해서 가져왔다고 했다. 지역 은행의 직원채용공고였다. 아이 엄마는 쌍둥이 출산 전까지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런데 취업에 도전하니 아이들이 눈에 밝히고,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나는 낮에는 어린이집, 저녁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애들이 아플 때에는 친정엄마 찬스도 쓰면서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아이들 엄마는 주변의 도움으로 취업을 준비했고, 마침내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 지금은 아이 넷을 키우며 당당히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이다. 직장에서도 아들 넷을 낳은 애국자라며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저출산시대에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수적이다. 특히 워킹맘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어다니던 생후 8개월의 쌍둥이가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뛰어다닌다. 실수는 하지만 ‘쉬~ 쉬~!’ 하면서 소변도 가린다. 무엇보다 대화도 가능하다. ‘돌보미 선생님~!’ 하고 부를 때면 벌써 이렇게 컸나 싶어서 대견하다.

쌍둥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한다. 대문 앞에서 엄마 손을 놓고 달려와 내 품에 안긴 쌍둥이들이 기특해서 한참 안아주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금세 적응하고 잘 놀았다. 준비해둔 장난감으로 놀이를 하고, 간식을 먹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던 쌍둥이. 엄마, 아빠가 멀리 가서 오늘은 여기서 돌보미 선생님이랑 잘 거라고 하자 신나서 폴짝폴짝 뛰던 쌍둥이. 내 침대에서 자고 있던 쌍둥이...

키가는 쌍둥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크는 동안 나도 성장했는지 돌아본다. 처음에는 남는 시간에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아이돌봄 일이 이제는 든든한 직업이 되었다. 일한 만큼 보상도 받으니 살림에 큰 보탬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얻는 보람이 가장 크다. 쌍둥이가 걷고, 말하고, 자라는 동안 알게 모르게 나도 함께 자란 것 같다.



종사자 우수사례

감동과 서사가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최규리

울주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지원사업? 그게 뭐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면 자주 듣게 되는 단골 질문이다. 똑같은 질문을 10년째 듣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사업 소개를 한다. 그럴 때마다 지인들은 “정말 좋은 일을 하네!”라고 말하고, 나는 자랑스럽게 “응, 맞아!”라고 대답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만들어낸 감동과 서사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 특성을 전화기 너머로 매일 느낄 수 있기에 이 일을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매일 신생아를 업고 출근하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어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보내달라는 호소로 시작하여 아이가 유치원 갈 때까지 이용한 가정. 타지에서 살다가 결혼하며 울산으로 와서 출산 후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울며 지내다가 우연히 아이돌봄서비스를 접하고 이용 후 생긴 시간에 자기개발을 하여 취직에 성공한 어머니. 아이가 4명인데 평소에는 신생아인 쌍둥이 막내들을 챙기느라 첫째, 둘

지금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 물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나아지리라 생각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현장에서 복지 체감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다만 이용자 자부담이 높아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아쉽다. 그래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면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짜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주말마다 큰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정.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활동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아이돌보미를 하기 참 잘했어요. 채용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시는 돌보미 선생님. 활동하러 갔더니 이용가정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믹스커피를 냉수에 타서 내밀었지만, 마음이 너무 예뻐서 원샷했다는 선생님...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두꺼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용 및 활동 사례가 쌓여 있다.

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두 가정이 있다. 그중 한 집은 오래전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다. 하루는 기관연계로 이용하던 24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인데 귀가 잘 안 들려서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안 되어 매일 다툼이 생기니 주말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냐고 문의하셨다.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토, 일 24시간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기에 어떤 사연이 있나 싶어서 아이의 어머니와 통화해보았다. 아이는 아직 장애판정을 받기 전이었고, 어머니는 아이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주말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다. 다행히 활동 가능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활동 후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이가 귀가 잘 안 들리니 아이의 뒤쪽에서 인사를 하면 놀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아이 앞쪽으로 가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 인사를 하면 아이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는 모습을 보이기에 손 인사는 하지 않아요.”

“아이가 혼자 걸어가다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놀이터를 갈 때면 항상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활동을 제외하면 1:1로 놀이를 많이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시간 중 절반은 놀이터에 나가 비눗방울 불기, 바람개비 접어서 후 불어보기, 모래놀이 등을 했어요.”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이 존경스러웠다. 1년 넘게 돌봄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다. 이제 수술비를 마련했고 수술 후엔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며, 돌보미 선생님도 매주 주말 내내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아이를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활동이 종료되었다.

다른 한 가정은 이용을 시작할 때는 맞벌이가정이었지만, 1년 뒤에는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었다. 아이 셋을 아버지 혼자 양육하다 보니 경제적, 심리적,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다. 하루는 아버님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선생님은 손이 떨릴 만큼 놀라셨지만, 아버님을 위로해드렸다고 한다.

“아버님,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등교 시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과 교문 앞에서 인사한 뒤 뒤돌아서면 아이들이 뒷문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담임선생님이 매일 전화하실 정도였다. 그럴 때에도 돌보미 선생님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다독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님을 위해 직접 지역아동센

터에 연락해서 하교 이후에는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다. 또, 가정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주변 사람한테 얻어서 가져다주시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학교생활도 곧잘 적응했다. 내년이면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이용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이용이 종료된다. 돌보미 선생님은 벌써부터 활동이 종료되면 매일 아이들을 보지 못하니 서운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신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큰엄마, 작은엄마, 할머니,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는 친정엄마로 한 가정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신다.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돼.”라고 하시거나 “아이들이 눈에 밝혀서 아플 것 같으면 활동 가기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링거부터 맞아.”라고 하셨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매일 전화로, 또는 시스템에 작성하신 활동일지를 통해 활동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내가 아이돌돌보미라면 과연 선생님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가끔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우리 선생님들만큼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 등을 유튜브나 마트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시는 선생님.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추자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끄러움은 잠시 내려놓고 거실을 무대 삼아 춤 연습을 하시는 선생님. 3시간 활동하러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선생님... 이처럼 사랑과 배려, 따뜻한 마음, 기다림, 인내, 노력, 희생을 바탕으로 활동하시는 돌보미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아이돌돌보미지원사업은 활동하시는 돌보미 선생님과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있어 사업이 진행되는데, 전담인력은 뒤에서 묵묵히 사업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시스템 접속 및 전화응대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업무를 한다. 이용자분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돌보미 선생님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연구 및 회의를 진행하며,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꾸준히 경청하고 있다. 선생님들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파악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군청,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업무협약을 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상담, 물품 지원, 교육 등을 연계하고 있다.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이돌돌보미서비스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울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울주군아이돌돌보미지원센터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아이돌돌보미지원사업이 어떤 일인지 단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동아줄



강 민 구

청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난해 봄인 2023년 4월 11일, 나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인도네시아에서 데리고 한국에 입국했다. 아내는 첫째 임신 중기에 잠시 한국을 다녀왔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 인도네시아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생활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오가며 지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왕래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계획이 어그러졌다. 생업에도 어려움이 생겨 가정형편은 점점 나빠졌다. 아내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무척 힘들어했는데,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난히 심한 입덧과 끊임없이 나오는 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처제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던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를 조율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집은 어디에 마련해야 할지,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은 어디로 정해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든 우리 부부는 잠깐 틈을 내서 바람을 쐬러 나갈 때에도 쉽게 언성이 높아 지곤 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해져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시기가 다가오자 나 혼자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처제가 아내 곁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처제가 한국에 함께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귀국하면 어떻게 연년생의 두 아이를 키울지 막막하기만 했다.

한국에 온 나는 오래전에 다니던 청주에 있는 회사를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며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곳에 취업하면 회사 근처에 거주지를 정해야 했다. 청주에 누나 둘이 살고 있어 그나마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누나들도 모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2009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난 왜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면 취업을 하는 데도, 연년생 두 아이의 양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우리 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든든한 동아줄과 같았다.

두 아이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왔다. 비행기를 세 번이나 타야 하는 고생길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잘 버텨 주어 고마웠다.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 여정을 반복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각각의 비행거리가 약 300킬로미터, 1900킬로미터, 4600킬로미터로 총 6800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거리였다.

긴 여행에 지친 우리 가족은 임시로 얻은 집에 도착하자 짐도 다 정리하지 못하고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아프지 않고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다행스럽

고 고맙기만 했다. 하지만 아직 최소한의 정주 여건조차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취업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했고, 아내의 법무부 입국 신고 및 외국인 신분증도 만들어야 했고, 한국 통신사의 핸드폰 유심칩도 필요했다. 다행히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황이 준비되는 대로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가 정해졌으니 거주지를 확정 짓고 법무부에 아내의 입국 신고를 했다. 아직 집에 인터넷도 설치되지 않아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족센터를 찾아갔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소득유형판정이라니, 이걸 뭘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다. 결국 주민센터를 여러 번 들락거려야 했다. 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소득유형판정을 비롯하여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와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일이다.

나의 취업과 아내의 한국 생활,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제집 드나들 듯 자주 방문했고, 주민센터 직원과 자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등원은 나와 아내가 맡아서 했지만, 하원은 돌보미 선생님이 봐주시게 되었다. 하원하는 길에는 첫째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자주 가서 놀다가 온다. 돌보미 선생님은 아내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팁도 알려주셨고, 아이들이 한국어 회화를 연습할 때 대화 상대가 되어주셨다. 한국 생활이 처음인 가족을 이끌고 한국에 돌아온 나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천군만마와도 같은 큰 힘이 되었다.

아내는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단계를 마치고 나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어 숙제를 한 다음,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했다. 만약 돌보미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풀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고 말았을 것이다.

앗! 오늘도 야근? 회사에 재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다. 아, 생각해보니 집에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다행히 돌보미 선생님은 돌봄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돌보미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아직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직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알고 돌보미 선생님은 부모님의 과수원에서 수확한 복숭아를 잔뜩 가져와서 나누어주셨다. 이걸 보너스였다! 이제 막 복숭아 맛을 알기 시작한 아이들은 선생님 덕분에 복숭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제 아내는 가족센터에 다니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어울려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친구도 생겼고,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 하원 걱정도 덜게 되어 생긴 여유였다. 더군다나 복숭아까지 갖다 주는 인심 넉넉한 돌보미 선생님이라니! 아이들이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아내가 한국 생활에 한층 더 적응하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착실히 저축해간다면 시간은 내 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도와주신 돌보미 선생님께 더욱 감사드린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기대된다.

웃음전도사가 선생님이로 왔어요



김민주

대덕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 아 찰싸! 근데 오늘이 마감일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독감에 시달리던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국가와 고마우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하겠다. 우리 집은 내가 아이 다섯을 홀로 키우는 한 부모가정이다. 첫째는 국가대표를 꿈꾸는 16세의 사이클선수이고, 둘째는 12세의 사춘기 소년이다. 셋째는 밋내는 걸 좋아하고 또래를 좋아하는 11세의 공주이고, 넷째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세의 천방지축 말쑥꾸러기다. 막내인 다섯째는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4세의 예쁜 공주다. 그리고 늘 나이도 잊고 바쁘게 살다 보니 누가 나이를 물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83년 돼지띠!”라고 대답하는 억척스러운 엄마인 나까지 모두 여섯 식구다.

이렇게 억척스러운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아이 다섯을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지다 보니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나중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이다.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정신을 잃은 나를 큰아이가 발견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구해주었다. 엄마이기에 이겨내야 한다며 울고 싶어도 꺾꾹 참고, 이를 악물고 지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 또, 아이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할까 봐 내 발목과 아이들 발목을 묶어놓고 잔 날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집에 누가 찾아오는 게 싫었고, 아이들은 방치된 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견디다 못한 큰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라며 애원했고, 드디어 신숙영 선생님께서 배정을 받아 오시게 되었다.

선생님이 처음 오신 날도 나는 온몸과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였다. 내가 자해를 한 것이다. 선생님께서도 놀라셨을 텐데, 아이들을 친절히 대해주셨다. 우리 집 환경 때문에 하루 오시고 안 오시겠지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의 교육 멘토가 되셨다.

한번은 궁금해서 여쭙봤다. 처음 내 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으셨냐고... 한번 오시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계속 오시게 되었냐고...

그때 선생님의 답변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엄마 이마에 든 멍과 온몸에 든 멍을 보며 처음에는 남편이 그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자해했다는 걸 알고는 자기 몸을 저렇게 만들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걸까, 그리고 그걸 본 아이들도 마음에 멍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가슴속 상처라도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오신 후에도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했다. 그래도 횡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지금은 약도 끊고 아이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다른 엄마들보다 모



정이 약하거나 정신이 나태해서 그런 병이 찾아온 건 아니다. 그리고 평생 못 고칠 병도 아니다.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유치원 교사 경력도 5년 정도 되고, 심리학 공부도 하신 분이다. 나와 아이들에게는 행운의 여신인 선생님이다.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밝고 구김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나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과부하가 되었던 것 같다.

너무 힘든 시기에 선생님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다.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나와 잘 지내주신 선생님, 엄마의 어리석은 행동도 엄마 잘못이 아니라 나쁜 병에 걸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도와준 아이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내가 그동안 선생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 선생님께서 우리 가정에 쏟아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 두서없는 글로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글을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숙영 선생님처럼 잘 웃는 분은 처음 보았다. 또 저렇게 웃는 모습이 예쁜 분도 처음 보았다. 선생님은 정말 '웃음전도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선생님 덕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정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가정을 선생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 본인이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시고,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나에게도 감사를 표하신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돌보미 선생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우리 가족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엄마가 아팠던 거는 비밀이란다^^.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희망이다



박수경

부산진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우리 집은 맞벌이가정이고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자립해서 양육하기로 계획했지만, 막상 둘째 출산 후 복직을 앞두고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첫째를 낳고 복직했을 때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지만, 둘째는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현재 2년 가까이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초기에 여러 선생님의 손길을 거쳐 지금의 돌보미 선생님과 일 년 넘게 함께하고 있다. 둘째가 복이 많은지 정말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매우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선생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려면 먼저 아이에게 설명해주시다. 하원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기 전에 “오늘은 ○○에 갈까?”라고 물어보며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시다고 한다. 둘째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돌보미 선생님은 처음 본다고 본인도 많이 보고 배운다고 말씀해주셨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잘 돌봐주시니 어린이집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의 부모들 모두 저에게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아이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시고,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의 말을 듣고 유추해서 맞장구를 쳐주시니 아이는 말하는 게 신이 나서 표현력과 언어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고 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안아주고 상냥하게 대해주시다. 하지만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아 울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안 되는 건 단호하게 말씀해주신다. 어린이집 장난감을 가지고 하원하겠다고 떼를 써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장난감은 내일 돌려줘도 된다고 하셨지만, 안 좋은 습관이 생길까 봐 아이에게 잘 설명하여 장난감을 두고 하원했다고 한다. 당장의 상황이 편한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아이와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바르게 잡고 넘어가서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양육할 수 있어 좋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시는지 어린이집에서 ‘사랑 선생님’으로 불린다. 선생님께서 아이가 어릴 때 좋은 언어를 많이 들려줘야 한다면 ‘사랑~ 사랑~’으로 아이를 부르셨고,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아이를 ‘사랑이’, 돌보미 선생님을 ‘사랑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한다. 처음엔 따라 부르기가 조금 어색했지만, 단어가 주는 힘이 있어서 아이에게 사랑이라고 많이 말해줬다. 지금은 아이가 나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준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볼 때 어려움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공정하게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다.

아이는 장난감이나 책으로 접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포크레인을 매우 좋아해서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나면 얼른 베란다로 뛰어나가 차를 구경하고 싶어한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옆동네까지 가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를 구경시켜주셨다. 3정거장이나 걸어가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이가 책이나 장난감으로만 접하던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다고 한다. 소방서 앞에서 구경하고 있으니 소방서 직원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봐도 된다고 배려해주셔서 아이가 가까이에서 보는 좋은 경험을 했

다. 그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 뒤로도 종종 가서 구경하고 온다. 아이는 나와 함께 그 동네를 가면 소방서 가는 길을 기억해내고는 “저기! 저기!” 하면서 길을 알려준다. 그래서 나도 아이와 함께 소방차를 직접 구경하고 왔다.

또,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책에 나오는 걸 같이 그리고 색칠하는 활동, 집에 있는 물건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는 활동 등 놀이와 학습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주시다 보니 아이가 다양한 사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신문지 찢기, 쌀 촉감놀이, 뽕튀기 부수기 놀이 등 여러 감각을 이용하고 숙련시키는 놀이도 해주셨다. 내가 일하는 동안 이루어진 활동이고 집에 가면 깨끗이 정리되어 있지만, 매일 선생님께서 오늘 어떻게 놀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신다.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나뭇가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오더니 ‘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오더니 ‘빠르게’, ‘느리게’를 말하고, 낙엽 밟기 놀이를 하더니 ‘나뭇잎’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특하고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간단한 놀이에서도 배움을 만들어주시니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할지,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진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필기해서 주시거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전달해주시다. 둘째는 두 번째여서 조금은 알겠는데, 첫째가 크는 과정에서 케어가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선생님 본인의 자녀를 키운 경험과 이전 돌봄을 했던 아이와의 경험을 합하여 조언해주셔서 양육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맞벌이가정에서 타인의 도움없이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예민해져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퇴근길 늦은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아빠는 아이 목욕, 엄마는 저녁식사를 챙기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지쳐서 아이와 놀아줄 여력이 없어 그저 TV나 보

여주고, 집안일도 밀려 있었다. 부부가 집안일과 아이 놀이를 서로 미루면서 집안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했고, 앞으로의 생활과 남편과의 관계도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적응한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기가 어릴 때에는 온종일 아이와 붙어 있는 엄마에게 돌보미 선생님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엄마는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었고, 아이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상대가 생겼다.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자 친구들이 하원하는 시간에 함께 하원할 수 있어 아이도 기분이 좋고, 맞벌이부부는 아이에게 미안함이 줄어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세심하게 케어하지 못하던 피부 상태, 건강 상태도 선생님이 확인해주시니 심신이 편해졌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선생님의 돌봄활동 시간에는 마음이 편하다.

맞벌이부부가 아이 둘을 키우며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가정이 내 주변에 없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 지금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아이의 하원 시간 후에도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워킹맘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럽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홍보대사가 되어 맞벌이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인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이 아니면 믿지 못하던 엄마들도 우리 선생님을 본 뒤 마음을 열었다.

이 글을 쓰면서 선생님과 주고받았던 사진, 영상들을 보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는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희망이다. 앞으로도 양육자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가 되어주길 바란다.

아이돌봄서비스라고 쓰고 부모돌봄서비스라고 읽다



서혜진

진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회사에서 받기 두려운 전화가 딱 한 통 있다. 한창 업무를 하다가 휴대폰에 ‘어린이집’이라는 네 글자가 뜨면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는지! 선생님께 “어머니! 아이가 열이 나서 지금 하원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가!

아이가 아파서 남편과 번갈아 연차를 쓰며 아이를 돌본 날이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주변에 폐를 끼친다고 자책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속담일 뿐, 현실은 온 마을은커녕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도 급히 맡길 곳 하나 없는 나에게 엄마, 그중에서도 워킹맘은 행복하면서도 무거운 이름표였다.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이름표 말고 내 이름 석 자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아플 때만이라도 엄마가 돌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다가 지칠 때쯤, 아이돌봄서비스 중

에서 수족구나 수두 같은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렇지만 섣불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게 아니라 퇴사를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을 거듭하던 중 급히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주시가족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금요일 퇴근시간이 다 되어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해주시고 주말 동안 돌보미 선생님을 연결해주셨다. 그 일을 계기로 인연을 이어나간 지 3년째다.

그사이 둘째가 태어났지만 첫째를 키울 때처럼 혼자서 끙끙 앓으며 힘들어하는 순간은 많이 줄었다. 아이가 돌이면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왜 오히려 덜 힘든 걸까?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중심엔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신 두 분 돌보미 선생님과 진주시가족센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일을 좋아해서 둘째를 임신하고도 계속 출근했다. 임신한 워킹맘의 일상 속에 쉽지 않은 날들도 많았지만, 둘째를 맞이할 생각에 행복한 꿈을 꾸었다. 그렇지만 막상 출산이 다가오자 부푼 배와 희망만큼이나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이 하나를 키우며 일하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 둘을 어떻게 키우지? 당장 내가 출산하러 가면 큰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이런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지난 경험을 떠올려 다시 한번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이정해 선생님은 20개월 된 첫째 아들과 갓 태어난 딸 아이를 돌봐주셨다. 내가 밤새 둘째의 수유를 하느라 하루 한두 시간씩 쪽잠을 잘 때, 선생님이 아침에 오셔서 첫째를 먹이고 씻기고 등원을 시켜주셨다. 동생에게 엄마를 빼앗긴 첫째가 응석을 부리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엄마의 손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다. 선생님이 첫째를 살뜰히 챙겨주신 덕분에 나는 온전히 둘째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늘 잠이 부족해서 쾡한 눈을 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셨다.

“피곤하지요? 잠이 많이 부족할 때예요. 나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잠이 어찌나 고프던지!”

“아기 엄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큰아이와 함께 등원하지 못해 미안해하는 내 마음을 아시고는 등원 길에 아이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엄마돌봄서비스도 함께 해주신 셈이다.

시간이 흘러 이정해 선생님께서 원래 돌봄을 하시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우리 가족은 고민 없이 다른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서 앞으로의 긴 시간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예전에는 왜 도움을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엄마로서의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부끄럽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만난 이지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신다. 둘째가 밤잠을 길게 자면서부터 그동안 엄마의 손길을 기다렸을 첫째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었다. 선생님은 마침 손자의 월령이 우리 둘째랑 같다며 반가워하셨고, 매일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책을 읽어주며 아침을 열어주셨다. 아이 둘을 챙기고 등원하러 밖으로 나가는 길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아는가! 어느덧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과 나는 서로 척척 알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입혀서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선생님이 둘째 옷을 갈아입히시는 동안 나는 첫째를 씻기고 옷을 입힌다. 정신없이 바쁜 중에도 선생님이 둘째의 긴 머리를 얼마나 예쁘게 빗어주시는지! 서툰 엄마의 솜씨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

했을 아이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고 웃으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쁨이다.

둘째의 출산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돌보미 선생님 없이 혼자였다면 결코 꿈도 꾸지 못했을 평화로운 아침 시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스스로 만든 엄마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에게도 툭툭대거나 모진 말을 하기 일쑤였고, 남편에게 왜 육아휴직을 못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다보니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일쑤였고, 엄마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책감에 빠져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언제든 나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었다.

이걸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해야 할까, 부모돌봄서비스라고 해야 할까? 돌이켜보니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인 나도 많은 돌봄을 받은 것 같다.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힘들 때면 언제든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마음의 안정지대가 생기니 남편과 아이들을 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고, 육아를 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어렵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젠 회사에서 일하다가 전화가 걸려와 휴대폰에 ‘어린이집’ 네 글자가 뜨더라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는데, 이제 함께 돌본다고 생각하니 지금껏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부담감이 사라진 기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는 있었지만 전화를 거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

다. 비록 함께 아이를 키워줄 온 마을은 없지만, 우리에게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 각 가정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혼자만의 방에 갇혀 고민하기보다는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돌봐주는 멋진 마을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마을이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언제든지 편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산후우울증 극복의 명약, 아이돌봄서비스



신재은

김해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는 언제까지 경력이 단절되어야 할까?

나는 경남 김해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엄마다.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첫아이를 낳아 키울 때 이용중인 이웃을 통해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접했고,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

워킹맘으로 3살 된 첫아이를 키우던 여름 어느 날, 아이가 장염증상으로 3주가량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장기결근을 할 수가 없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 새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간절함이 커졌다. 워킹맘에게 아이의 질병과 가정보육은 경력단절로 이어졌다. 내가 진작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더라면... 우리 집에 돌보미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오셨더라면... 나는 워킹맘으로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겠지? 지나간 세월이지만 그 회한은 아직도 여전하다.

지친 엄마의 몸, 아이는 둘, 해결책은 없었다

기왕 경력단절이 된 김에 둘째를 낳아서 키우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나저

러나 일을 못할 바엔 임신과 육아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그렇게 나는 둘째를 가졌고, 2023년 여름에 둘째를 출산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보니 나는 영유아를 돌보는 데 적합하지 않은 성향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하는 예민한 청각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첫째는 그래서 늘 업어주었다. 아이가 울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데 둘째는 내 몸이 하나뿐이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게다가 첫째를 너무 오래 업고 안아서 키웠더니 내 허리근육은 이미 다 망가져서 갇난아기를 안기에도 버거운 상태가 되었다. 첫째는 세 돌이 넘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고, 이제 막 태어난 둘째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퇴근한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잠드는 밤 9시부터 10시경까지 나는 보채고 우는 두 아이를 돌보며 매일매일 지쳐갔다. 안아줄 힘은 없고 온몸의 관절은 비명을 지르는 상태였지만 육아를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다. 첫째의 돌 무렵에 직장엔 문제가 생기자 남편은 퇴사하고 타지역으로 이직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다.

왜 주말부부인데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었을까...

왜 나는 경력단절이 되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 아이는 누워서 자지 않고 엄마 품에서만 자려고 할까...

왜 나는 아이 울음소리를 참지 못해서 수면교육을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모유수유를 고집하는 걸까... 분유수유를 하면 더 편해질까...

날마다 ‘왜? 왜? 왜?’ 하는 끝없는 의문 속에서 우울하게 지냈다. 낮에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뭘가에 홀린 듯이 휴대폰으로 일자리를 찾으려 하며 나는 언제쯤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허탈해지고, 눈물이 나고, 일하고 싶다가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고, 갈팡질팡 혼란 속에서 산후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독서로 마음을 다독여보려 했지만, 세

상에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아서 아이도 예뻐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우울증,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힘들게 한 첫째 딸... 그리고 퇴행

나는 그렇게 산후우울증의 늪에 빠졌고,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모든 스트레스를 첫째에게 쏟아내는 못난 엄마가 되었다. 첫째도 동생이 태어나면 위기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첫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 첫째가 투정을 부리면 “너는 언니니까 스스로 해라/엄마는 힘들다/동생을 배려해라/동생 돌봐야 하니 기다려라/동생 자니까 조용히 해라...” 등등 큰아이에게 밀도 끝도 없이 배려만 요구하며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다. 엄마의 사랑이 불안정했기 때문일까. 첫째에게 정서불안과 구강기 퇴행이 찾아왔다. 자기를 사랑하냐고 엄마에게 시시때때로 물어보고, 갇난아기처럼 장난감도 입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손톱, 발톱, 입술도 물어뜯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제대로 만나다

2024년 2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전화를 받고 뭘 듯이 기뻐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정기이용자가 되어 선생님이 배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빛과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네발기기가 아직 안 되던 둘째의 시선에 맞춰 힘드실 텐데도 납작 엎드려서 함께 놀아해주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선생님과 함께한 한 달 동안 둘째는 많이 늦었던 네발기기에 드디어 성공했다. 나는 선생님께 둘째를 맡기고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하면서 허리와 손목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체력도 붙었다. 아이들에게 웃어줄 힘도 생겼다. 그리고 퇴행

이 찾아온 첫째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어줄 여유도 생겼다. 매주 한두 번 정도는 선생님께 둘째를 맡기고 첫째와 데이트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요즘은 정서불안이나 퇴행행동이 점차 교정되는 것이 보인다.

우리 딸들의 최고의 친구이자 우리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 돌보미 선생님! 선생님은 둘째의 돌보미 선생님이시지만, 큰아이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다. 망설일 것 없이 바로 동시돌봄을 부탁드렸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신지는 아이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가정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찾아오신 선생님 덕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보인다. 또한 산후우울증으로 마음의 병이 깊었던 나도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 둘째가 좀 더 크면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할 돌보미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아이돌봄서비스! 주변의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꼭 서비스를 받으시길 독려하고 있다.



3.3.3과 함께 다시 찾은 평화



안 보 령

안양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3.3.3. 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 숫자들과 만났다. 각각의 숫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다.

첫 번째 3

나는 세 아이의 엄마다. 전부 아들이다^^. 서울까지 왕복 3시간 출퇴근하는 13년차 직장인이기도 하다. 나는 원하던 시기에 셋째를 임신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양육부담을 걱정하던 중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최근에는 다자녀 혜택이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내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세 자녀 이상이어야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둘째 때까지는 아이들 친할머니가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사실 알아볼 생각도 안 했지만, 셋째를 임신하고 보니 무작정 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는 없었다. 연로하신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을 구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직장이 먼 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움직여야 해서 등원부터 문제였다. 그런 상황에 주변의 세 자녀 어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아

이돌봄서비스는 나에게서는 정말 한 줄기 빛이었다. 첫째도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줄줄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셋, 그것도 아들만 셋인 집에 등·하원 돌보미를 모시기는 쉽지 않았기에 기댈 곳은 아이돌봄서비스뿐이었다. 민간 업체가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에 더 믿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셋째가 태어난 후 바로 신청했는데 다행히 대상자가 되었고, 오랜 대기 끝에 복지 전에 이용을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3

2023년 9월, 드디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세 명의 돌보미 선생님을 만났다. 반년 만에 세 명이나? 그렇다.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 우리는 하원 후에는 어머님께서 돌봐주기로 하셔서 아침시간에 도와주실 선생님을 신청했고, 첫 번째 선생님이 오셨다. 그동안 할머니 외에는 엄마 없이 아이들을 맡겨본 적이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지 미처 몰랐다. 아이들이 잘 적응해주기만 바라며 짧은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회사에 복귀했지만, 곧 나의 기대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첫째와 어린이집을 막 다니기 시작한 막내는 선생님과 등원 준비를 받아들였지만, 복병은 둘째였다. 돌보미 선생님께 마음을 열지 못해 아이도 선생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돌보미 선생님과 등원 준비가 싫다며 잘 다니던 5분 거리의 유치원도 안 가서 할머니께서 부랴부랴 오셔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급기야 30초 거리의 유치원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아침마다 전전긍긍, 출근은 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와 선생님의 성향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적응하기까지 충분한 배려 없이 돌봄이 시작되자 문제가 계속 생긴 것이다. 결국 한 달 만에 상호합의하에 선생님을 교체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첫 돌봄서비스 이용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잘 몰랐던 워킹맘의 고충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 달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이의 적응을 위해, 또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리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나는 단축근무를 하며 오전 등원을 도우며 두 번째 돌보미 선생님과 아이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다. 다행히 두 번째 배정된 선생님은 베테랑 경력자였고, 할머니의 푸근함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적응이 순탄히 이뤄졌다. 둘째도 돌보미 선생님의 존재와 필요성을 조금씩 인정해가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다행이라며 안심한 것일까? 한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 근무 중 돌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그만둬야겠다고 하시는데 눈물이 그냥 뚝 떨어졌다. 사무실 복도가 아니었다면 펄펄 눈물을 쏟을 뻔했다. 두 달 만에 세 번째 돌보미 선생님을 찾게 된 것이다. 아이 셋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려고 한 것이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 오래 버텼구나... 직장을 그만둘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다시 한번 워킹맘의 어려움을 사무치게 느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발 벗고 나서서 새 돌보미 선생님을 찾기 위해 애써주신 안양시아이돌봄센터 서 선생님의 노력과 위로가 아니었다면 내 마음은 무너졌을 것이다.

세 번째 3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선생님을 모셨다.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온다는 현실이 부디 큰 충격이 아니기를 바라며, 세 번째 실패를 피하기 위한 우리 가족과 돌보미 선생님의 합동 작전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막내는 세 번째 선생님을 무리 없이 따랐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큰아이 역시 변화에 금방 적응해갔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둘째였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

고 하셔도 오랫동안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신 경력은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우선 아이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맞춘 적절한 관심과 돌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셨고,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아이에게 다가가주셨다. 둘째에게만 슬쩍 작은 간식을 찢러넣어 주신다거나, 종이접기로 관심을 집중시켜 아이의 경계심과 불안한 마음을 풀어주며 친근하게 둘째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셨다. 소통이 중요한 둘째의 끊임없는 말 걸기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냥하고 친절han 대담을 놓치지 않으시면서도 막내와 큰아이 챙기는 것도 너끈히 해내셨다. 휴, 드디어 만났구나! 감사하게 지금 돌보미 선생님과 보낸 시간이 3개월이 되었다. 한 달 반의 적응 기간을 보내고 나는 무사히 단축근무를 끝낼 수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과 등원 전에 조금 더 놀겠다고 둘째가 일찍 일어나는 날들도 늘었다. 돌보미 선생님 싫다고 소리소리 치던 둘째가 말이다. 정말 감사한 3개월이다.

이렇게 아이 셋 위킹맘은 세 번째 돌보미 선생님과 돌봄 이용 3개월을 맞았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였기에 여전히 경력단절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돌보미 선생님의 정성 어린 돌봄 아래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고, 돌보미 선생님과 서로 내년, 내후년의 일정을 상의할 만큼 든든한 파트너십을 이뤘다. 일과 세 아이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우리 가정에 가져다준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정리해보았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정말 와닿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이용해본 아이돌봄서비스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문제가 생기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마을 이장님 댁 같다. 다른 위킹맘들도, 혹은 출산을 고민 중인 예비맘들도 꼭 한번 문을 두드려보길 추천하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부침개



엄 상 욱

영월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지나간 길도 곧 덮어버릴 듯한 폭설이 내리던 매서운 겨울날이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는 직장에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우리 가족은 나와 아내 그리고 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다. 딸은 3살인데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서 우는 걸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우리 부부는 아이와의 소통을 위해 표정과 입 모양, 손짓, 발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눈빛으로 아이의 감정을 파악하며,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직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가족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맞벌이가정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지 않은 우리 부부에게 소리소문도 없이 '육아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평온한 저녁에 평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하던 우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고, 견잡을 수 없이 커진 싸움으로 인해 아내는 끝내 아이와 나를 두고 집을 나갔다. 나는 집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 아내를 달래보려

했지만, 주체할 수 없이 커진 싸움과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아내는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둘 수 없어 아이를 점퍼에 감싸 안고 맨발로 칼바람을 쏟아내는 밖으로 나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나와 아이를 두고 멀리 떠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막했다. 아이와 함께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을 보며 아이도 울고 나도 울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다. 다 그만두고 싶었다. 부모님은 내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모두 멀리 계셨기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가끔 우리 아이를 돌봐 주셨던 정경하 선생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칼바람을 맞아 열이 40도 가까이 오른 아이의 눈과 눈물을 보며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 전화했다. 그리고 센터의 도움으로 정경하 선생님과 통화하게 되었다. “여보세요?” 선생님의 이 한 마디에 말문이 막혀 또 눈물을 쏟아냈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라는 선생님의 물음에 또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한참 울고 난 뒤 선생님께 어렵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 말에 선생님은 단숨에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 부녀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아이는 걱정하지 말아요. 집도 걱정하지 말고요. 내일 출근해야 하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얼른 주무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을 추스르고,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다. 한 손에 음식을 들고 계셨다.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먹고 나가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는 부침개였다. 나와 아이는 선생님이 가져오신 부침개를 맛있게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선생님은 “아이 열은 내렸어요? 아이 아빠는 마음이 어때요? 아이 엄마한테 연락해봤어요?”라며 안부를 물으셨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말고 직장에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출근길, 선생님의 말씀과 마음씨, 그리고 따뜻한 표정과 온기가 계속 떠올랐다. 가끔 뉴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부모 몰래 아이를 학대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나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정경하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돌보미로서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딸을 돌보고 우리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가족이었다. 살면서 이토록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크나큰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고열과 감기 기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아이는 잘 놀고 있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 텐데,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선생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 같았다. 매서운 추위, 슬픔에 빠진 집,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주시고자 헌신하신 정경하 선생님이 계셨기에 그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이다.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은 없었다. 어려운 가정을 피하지 않고, 상처받고 배고픈 가슴 아픈 이에게 한 끼 식사를 건네며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정경하 선생님을 만



난 건 나와 딸아이에게 큰 축복이자 행운이다.

그날 이후,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표정은 밝아졌고,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던 아내도 돌아와서 우리 세 식구는 전처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여정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지금은 아이와 둘이 살고 있다. 그리고 옆에서 책임감 있게 돌봐주시는 정경하 선생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그동안 술한 난관에 부딪쳤고,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다. 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시는 든든한 선생님이 계시고, 금쪽같은 딸아이가 있기에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며 살고 있다. 새 생명을 살리는 길,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길에 거름을 같이 뿌려줄 동반자가 있기에 외롭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예쁜 딸아이를 보며 곳곳이 잘 헤쳐나갈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좋은 시스템으로 인생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더욱 힘을 내며 나아가고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 전화할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종사자 선생님과 딸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시는 돌보미 선생님, 모두 감사드린다. 선생님들께 받은 따뜻한 배려의 마음, 어려울 때 도움 받은 일을 잊지 않고 어려운 자와 지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내 마음에 새롭게 담아주신 영월군아이돌봄서비스센터 선생님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새 생명을 살리는 길에 나도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

돌보미 선생님은 나의 롤모델



윤 신 영

여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36살, 1살이 되다

EBS 방송에서 한 강연자가 말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도 1학년이 되셨습니다.”

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36살,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36살에 1살이 된 것이다. 나는 아이를 출산하고 코로나 때문에 3주 만에 직장에 복귀해야 했고, 나 대신 남편이 어렵게 육아휴직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했고, 남편은 갑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늘 아슬아슬했다.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되자 우리 부부는 해결책이 필요했다. 남편이 육아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그러던 중 언니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라고 조언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고, 드디어 우리 부부는 이에 정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이 오시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우리 부부였다. 남편은 선생님 덕분에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면서 우울함과 예민함이 점차 사라졌다. 부부 사이의 미

세한 긴장감도 사라지면서 출근하는 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직장에서도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1살, 양육의 걸음마

아이를 낳으면 저절로 아이를 키우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아이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생명체 같았다. 우리 부부는 육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선생님은 앱을 사용하여 아이의 일상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셨다. 기록을 바탕으로 아이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아이에게 맞는 집 안의 온도와 습도까지도 면밀하게 잘 살피주셨다. 우리 부부는 이런 선생님의 돌봄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갔다. 나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양육의 걸음마를 한 걸음씩 떼고 있었다. 덕분에 아이는 늘 편안하게 지냈고, 가정이 평안해졌다. 더불어 나는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었다.

2살, 다 미안해!

초보 엄마인 워킹맘들은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나도 아이에게 늘 미안하다고 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맞지 않게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머님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셔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진짜 잘못하셨을 때에만 하셔야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한 뒤 상황에 따라 ‘미안해!’를 대처할 말들을 알려주셨고,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말하는 방법을 바꾸고 나니 워킹맘이라 아이를 잘 못 돌보는 것 같은 내 마음속의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3살, 엄마를 배우기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선생님은 어김없이 간단한 준비물을 챙겨서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다. 집 밖에서 보이는 새로운 것들은 풍부한 대화의 소재가 되었다. 집에서는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는 표현력이 좋아졌다. 선생님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셨다. MBTI가 대문자 T인 나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선생님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워킹맘이라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나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장난감을 많이 사줬다. 하지만 선생님은 장난감보다는 놀이를 통해 아이와 놀아주셨다. 풍선놀이, 그림그리기, 종이컵 쌓기, 테이프로 바닥에 도로 만들기 등등 집에서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선생님처럼 해보았다. 장난감을 갖고 아이 혼자 놀게 하지 않고, 쌍방 놀이를 하면서 아이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먹이는 방법, 화가 났을 때 아이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 약을 먹이는 방법 등 많은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주말에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물었다.

“나 애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애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나는 여자아이에게 내가 엄마라고 말해줬다.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자녀처럼 아이를 돌봐주시는 걸로 칭찬이 자자했다. 선생님을 완벽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은 나의 롤모델이다.

4살, 진정한 엄마로

그동안 선생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이를 잘 키워주셨다. 나는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직업의 특성상 하루 중 아이와 같이하는 시간이 적었다. 함께 놀아주시는 했지만,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착관계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름뿐인 엄마였다.

선생님께서 아이와 내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놀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등을 알려주셨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다. 선생님이 퇴근하신 후 아이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상담할 때마다 우리 아이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시면서 아이의 마음을 해석해서 말씀해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이런 너그러워진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진정한 엄마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

5살, 나의 아이를 긍정적으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5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했다. 선생님은 아이가 말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꼭 핸드폰에 저장해놓았다가 알려 주신다. 선생님의 이런 노력 덕분에 나는 아이의 친구들 이름도 알고, 놀이터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몰랐던 아이의 모습을 많이 알아가고 있다. 하루는 내가 “아이가 낮가림이 심하고 고집이 세어 걱정이예요.”라고 하자, 선생님께서 “낮가림이 심해서 아무나 따라가지 않고, 위험한 행동도 덤석 하지 않아서 좋아요! 자기주장이 명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고, 빨리 얻을 수도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셨다. 내가 걱정하는 아이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다. 덕분에 아이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종종 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좋은 돌보미 선생님을 만나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일과 양육도 모두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 힘들면 나처럼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봐!”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자 위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수와 궁금증이 많은 나를 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준 센터 직원분들 덕분에 돌봄서비스를 200퍼센트로 잘 이용할 수 있었다. 5년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

아이 한 명에서 다섯 명이 되기까지



이미 림

서울시중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삼둥이 100일 무렵 돌보미 선생님과 첫 만남

2020년 2월 삼둥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남편의 육아휴직 3개월이 지나고 삼둥이의 100일이 지난 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해두었다. 돌보미 선생님과 면접 전날 밤,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갔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친정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이들 걱정에 급히 우리 집으로 가셨고, 다음날 나를 제외한 남편, 친정엄마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이 첫 만남을 갖고 면접을 진행했다. 위로 첫째가 있고 삼둥이가 있는 4남매 집에 선뜻 오겠다는 돌보미 선생님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데 우리 집을 방문해주신 선생님이 계셨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 코로나!!!

당시는 코로나의 위험성이 공포 수준으로 올라간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선생님의 자녀분께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센터를 통해 받았다. 돌보미 선생님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해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 당시 분위기는 말도 못할 정도였

으니까. 선생님께 자녀분의 안부를 먼저 여쭙고 격리기간 후 코로나검사 결과를 부탁드렸다. 다행히 선생님은 음성판정을 받으셨고, 아드님도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라 곧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 삼둥이와 돌보미 선생님은 돌봄 시작 전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우리의 육아철학-상호간의 존중

나는 생후 70일 무렵 수면교육을 마쳤다. 아이들이 스스로 잠들도록 가급적 안아주지 않았고, 분유수유는 수유쿠션을 이용했다. 사람마다 육아철학과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돌보미 선생님과 나의 육아방식과 철학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고, 선생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방식을 존중하며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나도 겪어보지 못한 전투육아를 선생님의 경험과 도움 덕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특히 항상 피곤한 나를 위해 선생님은 우리 집에 오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다. 2인용 유모차에 아이 둘을 태우고 산책을 하고, 차츰 분유를 챙겨가서 수유도 하고, 아이들의 낮잠 후 목욕을 시키는 패턴이었다. 이런 규칙적인 일과가 나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짜잔, 멘토 선생님!!

돌보미 선생님은 삼둥이 중 둘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봐주셨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얼마 후 주 2회 정도 출근하게 되어 또 다른 돌보미 선생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집은 아이도 많고 기존에 오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선뜻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정이니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이 배정되었기에 면접 신청도 안하고 일단 무작정 오시는 것으로 신청했다. 새로운 선생님이 집에 오시기로 한 첫날이 되었다. 새로운 선생님은 현관문을 들어서며 기존 돌보미 선생님께

“짜잔! 멘토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나누셨다. 기존 선생님이 돌봄센터에서 신입 선생님의 교육 멘토로 활동하셨는데, 그때 신입이셨던 새로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지원해주신 것이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삼둥이를 사랑으로 길러주셨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특히 평생 감사해야 할 기억이 있다. 삼둥이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그중 아들인 셋째는 태어나서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유독 많이 보채는 아이였다. 사랑이 많이 필요한 섬세한 아이였다. 드센 두 딸 사이에서 마음도 여리고 섬세한 아들을 새롭게 오신 선생님께서 전담으로 맡아주셨다. 선생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안기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럴 때면 선생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이 나이에 누구를 이렇게 안아주겠어. 그래, 마음껏 안아줄게.”라고 말씀하셨다. 조금은 엄격하지만 중심을 잡아주시는 기존 (멘토) 선생님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또 다른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2020년 9월, 삼둥이가 기어다닐 즈음,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녀 계획에 다섯째까지 있었지만, 계획한 시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두 분의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던 시기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키우라는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다. 한 분은 오전 9시~오후 4시, 또 한 분은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출근하셨다. 두 분은 임신부 삼둥이 맘의 든든한 지원군이셨다. 막내 출산을 앞뒀을 때도 걱정 말라며 격려해주셨다. 두 분 덕분에 나는 정말 걱정을 안 했다.

선생님은 출근하시면 삼둥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챙겨 산책을 나가셨다.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걸었고, 집에 돌아오면

목욕하고 이유식을 먹고 또 낮잠을 자고... 그렇게 정해진 일과를 보내며 아이들도 나도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다. 막내 출산을 위해 집을 나설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걱정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18개월 된 삼둥이의 어린이집 입학, 애교쟁이 막내와 선생님의 티키타카

삼둥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서 돌보미 선생님 한 분과는 이별하게 되었다. 경제적 여건만 된다면 두 분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서 막내를 오후 1시~4시까지 돌봐주시고, 삼둥이가 하원을 하면 세 명을 동시에 돌봐주시는 것으로 스케줄을 변경했다.

엄격할 때는 엄격하던 선생님이 막내를 돌보면서 변하셨다. 막내한테는 오냐오냐하시는 거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라더니 선생님도 그런 걸까?

아이 하나를 돌볼 때와 아이 여럿을 돌볼 때는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이다. 막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선생님과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 정리를 하고, 존댓말을 쓰고, 대답을 참 잘하는 아이다. 막내를 돌보며 선생님께서 그렇게 대하며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존중하고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선생님. 외출 후에는 신발 정리를 하는 선생님을 보고 따라하며 막내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 선생님이 안 오시는 일요일이면 “선생님 언제 와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라며 선생님을 찾는 막내. 나하고 이런 문답놀이를 하는 막내는 천재인 것 같다. “엄마가 좋아,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아빠가 좋아, 선생님이 좋아?-아빠!/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엄마!”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선생님이 자리매김

우리는 아이들 밥을 먹일 때 왜 그리 화가 나는 걸까? 이유식을 먹을 때 안 먹

고 짜증내는 아이부터 자라며 점차 편식하는 아이까지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정량을 꼭 먹이신다.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서 안 먹으려 든다며 차라리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실 때도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자리에 없으면 아이들은 밥도 더 잘 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삼둥이를 맡겨 두고 장을 보고 올 때도 있다. 잠은 또 얼마나 잘 재우시는지, 남다른 비법이 있으신 것 같다. 엄마, 아빠로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훈육을 하신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절제가 안 될 때 선생님은 중심을 잡아주셔서 출산 후 산후우울증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다. 힘들어 보일 때에는 나가서 바람 쐬고 오라는 선생님. 내가 남편 흉을 보면 남편 칭찬을 해주시고, 남편에게는 내 칭찬을 해주시는 선생님. 얼마 전 설날에는 아이들이 선생님께 새배를 하고 새뱃돈을 받았다. 한 명도 아닌 다섯 명이니 거금을 쓰신 것 같아 죄송했지만,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하고 배움을 얻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둥이는 4살, 막내는 3살이 되었다. 오후 4시 30분에 어린이집을 하원했다는 알람을 보고 정신을 차릴 때가 많다. 아이들 하원 후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어준 뒤 집으로 돌아오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일정에 맞춰 저녁준비를 하고, 집을 치우면 자동으로 선생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 토요일에는 선생님이 오전 11시에 출근하신다. 나도 아이들도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선생님 오실 거야. 빨리 정리하자.” 아이들은 선생님과 놀이터에 나갈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가끔씩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다. “선생님이 다 키우셨죠. 밥도 다 먹여주시고 책도 다 읽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 낳고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보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보미 선생님 덕에 돈독해진 가족 사랑



최창범

화성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올해 35살인 5식구의 가장, 최창범이다. 먼저 우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랑하는 아내 김다솜,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강후, 강유, 강인 삼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 세 아이는 각각 2021년 4월, 2022년 3월, 2023년 10월의 연년생이다. 아내와 2019년 11월에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지만 뜻하지 않게 유산되었다. 이후 6개월 뒤에 첫째 강후가 생겼다. 강후가 출생하고 한 달 뒤에 예상치 못하게 둘째를 임신하여 11개월 차이로 강유가 태어났다. 그리고 강유를 출산한 지 8개월 만에 셋째가 생기게 되었다.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어린 두 아이를 혼자 돌보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다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토요일 돌봄서비스를 신청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께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셋째 강인이 태어났다. 우리 가정은 짧은 시간 동안 쌍둥이가 아닌 연년생을 돌봐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주중 아이들 돌봄이 시급해졌다.

주변 분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 부부야말로 진정한 애국가라며 축하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손’이라는 것이다.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도와줄 ‘손’이었다. 그 손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손을 잡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직장도, 부모님도 쉽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쉽게 손을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정 형편상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다. 화성시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일찌감치 신청은 했지만, 아무래도 삼 형제에다 막내가 너무 어려서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화성시, 여성가족부, 동사무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손을 내밀었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당장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국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드디어 3월에 한 선생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내밀었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이다. 도움을 구하려고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고 잡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지금은 주중에는 한 선생님께서, 토요일에는 다른 선생님께서 함께해주신다.

전쟁터 같았던 우리 가정에도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빨리 해라!” 같은 잔소리가 늘 집 안에서 찌렁 찌렁 울려 퍼졌었는데, 선생님들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집 안의 소리가 달라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채촉하던 우리 부부의 말투가 달라졌다. 집 안 분위기도 달라졌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다. 급하게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바빴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를 예뻐하고 챙겨주

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건 아내였다. 혼자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던 아내는 안정을 되찾았다. 혼자 끙끙대며 대화할 상대도 없이 바쁘게 지내던 아내에게 이제 옆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봐줄 조력자가 생긴 것이다. 늘 혼자서 세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던 아내의 무거운 부담감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했던 우리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그동안 나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미안함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욕아에 쏟아야 했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함께해주시는 선생님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진다. 첫째가 한창 고집을 부릴 4살이어서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시기도 한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자녀를 양육한 분들이라서 믿고 맡길 수 있다. 자식을 키우고 가르쳐본 두 분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우리 가정에 녹아들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을 통해 우리 부부는 욕아를 배울 수 있고, 훈육과 가르침을 배우며,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미흡한 모습을 보게 된다.

만약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을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기죽어 살고, 그런 부모 아래에서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양육했을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 귀한 시간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미국의 여론조사사업체인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듣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의 선진국에서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조

사했다고 한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 17개국 중 14개국은 가족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 14개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물질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소중한 가정의 가치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현재의 세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깨져버린 가정, 지친 가정, 상처 입은 가정,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하루하루 전쟁터 같은 가정,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 비극적인 가정들이 희망을 보고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또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의 대처 기반이 되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넷째에 대한 꿈이다. 아이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즘은 어쩌면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손잡아 주셔서 감사하다. 가정의 가치를 소중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앞으로도 희망의 불꽃이 되어주길 바란다.

눈물을 희망으로 바꾸준 돌보미 선생님



황인아

남동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10년 넘게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다. 만성질환자인 나에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이 세 가지는 참으로 큰 사건이었다. 임신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부터 쉽지 않았고, 임신기간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결국 조산을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좋은 엄마’가 되고자 했던 나였기에, ‘아픈 엄마’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 찼고, 눈물과 한숨이 떠나지 않았다. 아기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속에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가득 찼고, 감사함보다 슬픔과 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다.

사랑하는 아기를 직접 안아주기도 힘들고, 아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과정 또한 다른 엄마들처럼 쉽지 않았다. 그래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기가 생후 100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 아기를 맡길 곳이 전혀 없는 처지였기에, 너무 막막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친한 언니가 안타

까워하며 이야기해주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건 어때?”

나는 그때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많이 불편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아기를 안아주려다가 놓쳐서 아기가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긴급한 상황인 것을 파악한 센터에서는 돌보미 선생님을 신속하게 배정 해주셨다.

돌보미 선생님께서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하시기로 한 날, 긴장과 걱정이 가득했다.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기가 돌보미 선생님에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선생님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방문하셔서 아기를 능숙하게 돌봐주시고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 선생님이 오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 나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 상태가 나빠져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아기가 돌보미 선생님과 낯가림 없이 잘 지내서 선생님께 아기를 맡기고 마음 편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를수록 선생님에 대한 경계심은 친근함으로 바뀌었고, 걱정과 근심은 평안함으로 바뀌었으며,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막막함으로 흘리던 ‘눈물’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기를 직접 안아주지도 못하고, 아기의 욕구를 바로 채워주지도 못하며, 누워만 있는 ‘아픈 엄마’는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

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기 엄마, 혹시 아기에게 특별하게 해주고 싶은 거나,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아기 엄마 대신 육체적 엄마 역할을 해줄 테니 편하게 이야기해 봐요~~~.”

어둠 속에 빠져 있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셨다. 나는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다. 우울한 눈물을 흘리던 나의 두 눈에 회복의 눈물이 가득해졌고, 선생님 덕분에 내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기니 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아기를 보며 눈물짓는 엄마가 아니라 미소짓는 엄마가 되었다. 나 대신 육체적 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신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주셨고, 내가 아기와 하고 싶은 놀이를 나 대신 해주셨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다 해결해주셨다. 아기 엄마인 나의 육아방식과 동일하게 해주신 선생님 덕에 아기도 많이 안정되어서 점차 표현도 다양해지고, 밝아지고, 유아식도 잘 먹게 되어 집 안에 웃음이 가득해졌다.

우리 아기의 첫 앉기, 첫 일어서기, 첫 걷기, 첫 말하기 등 아기의 첫 경험을 늘 함께하신 선생님. 선생님과 나는 아기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아기 이야기를 시작하면 신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가도 내가 갑자기 아파서 눈물 흘리면 선생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선생님과 나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의미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

소중한 시간들을 공유하면서 가족 그 이상의 관계가 된 선생님은 우리 아기의 또 다른 엄마이자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기도 하다. 아기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아기 엄마인 나도 보살펴주시며 내가 ‘좋은 엄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지금까지도 선생님과 인연이 이어져서 종종 연락하며 아이의 소식을 전해드린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선생님, 사랑으로 우리 아기를 함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양육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큰 희망이 되면 좋겠다. 더 나아가 아이돌봄서비스가 신혼부부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주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란다.

귀한 일을 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김명희

산청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선생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선생님 자동차 가는 걸 보니 그래요.”

“아, 그랬구나, 내일 또 볼 수 있잖아!”

“선생님, 사랑해요.”

아이는 손 뽀뽀를 마구 날리며 내 품에 안긴다.

“사랑해! ○○이가 최고야!”

나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아준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퇴근하는 길. 문득 지난 6년간 아이와 함께한,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 같은 추억이 파도가 밀려오듯 가슴속으로 들이친다. 하얀 포말이 솟아오르듯 마음이 벅차다.

양성교육 수료 후, 실습 가정을 방문해 돌이 갓 지난 사내아이를 처음 만났다. 아이는 걸음마도 서툴러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 아이와는 계속 인연이 이어져 지금도 돌봄을 하고 있다. 누나, 형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서인지 표정이 밝고 부드러웠다. 아이를 보자 ‘내 손자처럼 아끼고 많은 사랑을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봄 일을 시작하기 전, 손자들을 돌본 것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리라 다짐했다.

실습을 마치고 그 가정에 곧바로 정식 아이돌보미로 가게 되었다. 그때는 아이가 어려서 이용자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종일 돌봄을 했다. 밝게 웃는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가 신뢰 관계를 쌓는 데 큰 영향을 준 거라고 믿었다. 잘하려고 억지로 애쓰지는 않았다. 위생과 청결은 당연한 일 이었고,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에 특히 신경 썼다.

지난 6년간 아이는 키도 많이 컸고, 생각도 많이 자랐다. 매일 저녁 어린이 집에서 집으로 데려오면 가장 먼저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지금까지도 그건 변함이 없다. 아이가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밥 먹기 전에는 절대 간식을 주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밥상을 예쁘게 차리려고 정성을 다한다. 밥을 먹인 후에는 과일을 꼭 챙겨 먹인다. 구연동화로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안고 뛰고 뒹굴며 논다. 그동안 아이가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 고맙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돌봄 아동의 가족과 신뢰 관계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다 보니 이용자 가정 부모님은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맡아주셔서 밖에 나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연신 감사인사를 한다. 아이돌보미로서 이용자 가정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자부심을 느낀다.

좀 더 전문적인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에 도전했다.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과 보육학을 복수 전공을 했다. 자식을 키우고 손자들을 돌보긴 했어도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받아들이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아이

돌보미 역할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귀촌 후에 아이돌보미라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시골에서 할 일이 뭐가 있냐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난 자부심을 갖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당당히 주장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주위의 인식이 ‘귀한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 국가’로,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 상황에서 ‘늘봄교육’과 더불어 ‘아이돌봄사업’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세대가 육아를 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성이 자아실현이나 가정 경제를 위하여 사회로 진출하여 활동하는 맞벌이가정이 많다. 맞벌이가정에서 아이의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려면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봄사업’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그 일을 바로 내가 하고 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아이돌보미라는 직업의 사명감과 자존감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것은 내 삶의 소중한 기회가 되어 나의 노년을 윤택하고 의미 있게 바꿔놓았다. 또한 나를 찾는 계기가 되어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일에서 멀어지고 편안함만 찾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몸 편한 게 최고’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내 가치관과는 확연히 다르다. 직업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귀한 일을 하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기에 아이돌보미의 중요성을 주위에 널리 알리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아이돌보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까지처럼 사랑할 것이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느낀 보람과 행복은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어주었다. 늦은 나이에 일할 기회를 준 정부에 정중히 머리 숙여 감사함을 표한다.

10년 후의 나에게 ‘지난 10년간 무슨 일로 행복했는가?’라고 물어본다. 국가의 미래인 아동을 손수 돌보는 아이돌봄 일을 했다는 사실에 큰 자존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이용자 가정이 바깥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고 나는 당당히 답할 것이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마크 트웨인의 말에서 힘을 얻으며 오늘도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고 가슴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소중한 아이를 만나러 가니 표정도 밝고 마음가짐과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길가의 풍경을 둘러본다. 햇빛은 나뭇가지에서 웅크린 채 몽우리 저 있던 벚꽃은 옥수수 알갱이가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 터지는 팝콘처럼 미소 지으며 활짝 피어나고 있다. 벚꽃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고 빛나는 존재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처럼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고 건강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본다. 아이들이 걷는 그 길을 손 내밀어 끌어주고 때로는 지켜보며 함께 갈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가 큰 생각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가슴으로 데워주고 싶다. 내 가슴을 가득 채운 크나큰 사랑이 아이에게 잘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돌아나는 연초록 새싹처럼 아이의 몸과 마음도 푸릇하기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김 영 남

부산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인 나태주 님의 ‘풀꽃’이란 시다. 15년 가까이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늘 마음에 새겼던 글귀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아이들의 작은 행동까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처음 방문할 때의 긴장감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 방문하는 날까지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만학도로 뒤늦게 부산여대 복지상담과에 진학하여 보육교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해 졸업할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자격증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아이돌보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이돌보미는 나에게 천직이다. 출근할 때는 돌보미 선생님이로서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위해 과하지 않은 밝은 톤의 화장을 하고, 활동적이면서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는다. 매일 아이들의 학교 과제를 체크하고, 한 권 이상의 동화책을 읽고 짧게라도 독후감을 쓰게 하며, 바쁜 부모님 대신 떡 만들기와 종이접기, 간단한 게임 등을 함께 하는 놀이학습을 통해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는다.

15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다. 3세에 만나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인연을 이어간 아이도 있고, 삼 남매를 같이 돌본 적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정은 아무래도 처음 방문했던 가정이다.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산동네였고, 부모님의 불화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한부모가정이었다. 갑자기 두 아이의 가장이 된 어머니는 생업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처음 방문한 날, 집 안에는 단전·단수 예고 통지서가 쌓여 있었고, 온수도 나오지 않았다. 바닥에 바퀴벌레까지 기어다니고 있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유치원생인 첫째 남자아이는 동화책 읽기를 거부했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정서적인 학습활동보다는 간식이 고른 아이들이었다. 방문할 때 초코파이 같은 소소한 간식을 챙겨가는 것부터 한부모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팸플릿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서 가져다주는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동화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궁금한 것에 대해 묻기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바쁜 어머니 대신 학교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다.

내가 넘어져서 한쪽 다리에 깃스를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는 택시비를 드릴 테니 꼭 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울먹였다. 나는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한 달 가까이 깃스를 한 채 버스를 타고 산동네 길을 오르내렸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제도 안내장이 도움이 되어 LH 전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돌봄 가정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따뜻한 가정으로 안정되어갔다. 3년 가까이 돌보미 선생님으로서 돌봄 가정과 인연을 이어갔고, 돌봄이 종료된 뒤에도 가끔 서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바

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마트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의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는 나를 보면서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다.

한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으로서 매주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돌본다. 15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부모님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고 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자기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아이들은 나를 잘 따르고, 함께 활동하고 학습하는 시간 내내 즐거워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도 무너졌다고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에는 높은 주택 가격, 고물가,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한다. 육아와 교육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현재의 저출산 문제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아이돌봄서비스야말로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며, 아이돌보미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근길에 나선다.

나는 행복한 아이돌보미입니다



김 윤 경

논산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2013년 6월 말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만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많은 가정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났다. 하루 단 2시간만 돌봐준 아이도 있고, 4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거의 8년을 돌봐준 아이도 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가정은 하나의 스토리북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아픔, 사연, 기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말이다. 자의든 타의든 일하면서 그런 수많은 책을 접하게 되는 게 아이돌보미가 아닌가 싶다. 난 그중에서도 힘든 점과 아픔에 쉽게 공감이 되어서인지, 본인 하나도 제대로 진사하기 힘든데 직장을 다니며 아이까지 키우는 어머니들이 안타까워서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다 보니 아이만 돌보는 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때로는 어머니들의 상담사 역할까지 하게 된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갖고 내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다.

지금 매일 돌보고 있는 윤○는 7살이다. 5살 되던 해 1월부터 돌보고 있다. 처음 윤○네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 싶어 너무나도 신기했다. 바로 윗집에 사는 태○이를 3년 6개월 전까지 방학 때마다 와서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6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윤○ 어머니께는 따로 알리지 않았고, 윗집 태○이와 부모님도 만난 적이 없어 이사를 가신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생이 된 태○이를 만났다. 마스크를 써서 눈만 봤는데도 낮이 익었고, 교복 위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아는 체를 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코로나 시국이라 나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아이는 나를 알아보고 “선생님!” 하고 불렀다. 이게 바로 아이돌보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아닌가 싶었다. 나중에 엘리베이터에서 태○의 부모님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웠고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면서 ‘이래서 사람은 잘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다.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줄 모르니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돌봄을 한 지 2년이 지난 최근야 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태○의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이를 오래 돌봐주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고 하시면서 이 신기한 인연에 감탄하셨다. 이때 내 입이 무거운 걸 나 스스로 칭찬했다. 아이돌보미 일을 하면서 내가 지키는 원칙 중 하나가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로 알리지 말자.’였다. 센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이야기하고, 타인과는 절대 그 가정의 개인사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나 또한 친한 사람에게 해준 얘기가 내가 모르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공포를 느낀 경험을 해본 터라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아이의 안전과 더불어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뻐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생활고와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나서 입사했던 터라 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곳은 가능하면 어디라도 갔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가정과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다. 어쩔 하나같이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뿐이었는지 참 힘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집부리고 떼쓰는 모습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하던 것과 똑같았다. 부모님이 ‘너랑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 거다.’ 하셨는데 내가 낳지도 않은 남의 자식이 어떻게 내가 어릴 때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던 행동과 태도를 똑같이 취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다 싶었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 특히 나와 성격이 다른 우리 엄마는 나를 키우실 때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이제는 돌봄 아동에게서 어릴 때 나의 미운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께 ‘죄송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절을 올린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돌보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태○이도 고집이 너무 세서 정말 힘들었다. 하루는 아파트가 떠나려가라 악을 쓰며 울어댔고, 그렇게 크게 한번 부딪치고 나서야 고집을 꺾고 나를 받아들였다. 부모님도 태○이가 고집부리는 걸 고쳐줬다며 나에게 고마워했다. 결과는 지금처럼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사이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잘 알아본다.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떼쓰고 투정 부리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아이는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처음에 ‘애를 어떻게 돌보지?’ 싶었던 아이도 나중에는 천사가 된다. 아이는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대로 닮는다. 그래서 어른의 행동이 중요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역할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사에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적어도 내가 돌본 아이만큼은 예의 바르고,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나로 인해 한 아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훌

륭한 사람,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떳떳한 사회 구성원, 건실한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질 것이고, 결국 내가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부모님이 의지처가 되어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안 된다면 나라도 아이의 편에 서서 무조건 믿어주려고 한다.

물론 정직하지 못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낸다. 이 또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어렸을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잘못이라고 혼내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다는 어느 범죄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기면서 말이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아이의 마음속에 안정감과 세상에 대한 긍정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이돌보미가 아닌가 싶다.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찌 사명감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 아이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오늘도 나는 내가 돌보는 윤○와 재미있게 글자 공부를 한다. 때론 종알종알 떠들면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나루토 춤도 추고, 놀이공원에서 사운 풍선으로 배구랑 축구를 하면서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다. 슬라임을 가지고 떡 가게를 차리고, 탕후루 가게 놀이를 하면서 놀다가 매일 아쉬워하며 헤어진다.

준가족이라 칭해지는 친밀한 사이, 부모님은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 또한 아이와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는 이런 관계가 세상에 많지 않다. 나를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나는 의미 있고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다. 이걸 10년이 넘게 일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애나 돌보고 있는 내가 안타깝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과거 경력과 배운 것이 아깝다고 다들 그만두라고 뜯어말려서 한동안 숨기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돌보미 일을 누구나 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물론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해주는 꽃 같은 아이들을 매일 볼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가족이나 친인척도 아닌데 아이들로부터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이 복(福)을 누리고 싶다.

나는 쌍둥이의 인생 첫 선생님!



김 윤 경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한 해 한 해 지내다 보니 어느덧 10년차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다. 40대 후반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출가한 딸이 있어 지금은 나도 외할머니가 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여유가 생겨 일을 찾고 있을 때, 마침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 둘 키운 엄마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면접 때가 생각난다.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같이 면접 보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고,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습을 마치고 막상 실제 돌봄에 투입되어 보니 육아를 한 것은 오래전 일이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이용자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이 앞서서 실수도 많이 했다. 많이 서툴렀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떼게 되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내 몸이 마음처럼 따라 주지 않아 쿵 부딪쳐 아기가 다치기라도 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돌봄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예쁘고 애정이 차곡차곡 쌓여 저절로 정이 들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마법 같다. 영아 돌봄은 연계 종료시점이 되면 어린이집 등원 적응기간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초보 시절에는 이별할 시간이 되면 서운해서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헤어지려고 눈물을 꺾꼭 참았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며 나도 단단해졌고, 헤어짐도 쿨하게 받아들이는 내공이 쌓였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웠지만,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나는 모든 게 서툴고 힘들어서 아이들이 예쁜 줄도 모르고 키우기에 바빴다. 하지만 아이돌보미가 되어 돌봐준 아이들은 달랐다. 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멋모르고 키운 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게 된다. 바보 같고 지혜롭지 못한 엄마였다는 죄책감이 들며 만감이 교차한다. 천사들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주로 영아 돌봄을 했는데 4개월 무렵부터 돌 전후까지 돌봄을 하다 보면 가족 같은 마음이 생겨 때로는 감정이 넘쳐흐를 정도다.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어서 자제하고 경계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다. 스스로 부족하다 느껴지면 아쉽고, 과하면 오버하는 행동이 나와서 실수하게 되어 아이돌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아이돌보미는 주로 50대부터 70을 바라보는 연령층이다 보니 연륜을 앞세워 고집을 부리기 쉽다. 나 역시 이용자한테 친정엄마 같은 마음에서 본의 아니게 가르치려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보자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분명한 자기표현, 주장,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간혹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아무튼 합리적이고, 우리 세대가 갖지 못한 이해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귀 기울일 부분이 많다. 아이돌보미와 젊은 엄마는 서로 돕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

돌봄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다짐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규정 한도 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것만 챙기되 선을 넘지 말 것.

둘째, 연계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게 노력할 것.

셋째, 이용자한테 도움이 될 육아 정보는 제공하되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강요하지 말 것.

지금까지 여러 가정에 연계되어 활동하는 동안 만났던 이용자들에게 나의 의중과 진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돌봄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자와 가끔 연락이 닿기도 하지만, 일부러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끝나면 앞으로도 아이가 잘 자라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며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0년차인 지금은 중산간 마을 편도 3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장거리 쌍둥이 가정을 연계해 다니고 있다. 4형제 가정이다. 쌍둥이 가정이지만 위로 형제가 둘이나 있다. 처음 가서 보고 깜짝 놀랐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보기 드문 가정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도 아낌없이 해줬다.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만 얼마나 예쁘지 모른다. 정말 다복해 보인다.

연계 과정에서는 장거리 가정이라 솔직히 망설였지만, 하다 보니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간다.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다. 쌍둥이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쌍둥이들 인생 첫 선생님이세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나 귀한 인사인지 모른다. 내가 더 감사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었다. 무한한 책임감도 생겼다.

쌍둥이들은 이제 첫돌도 지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신통하기까지 하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말이 지나 방문했을 때 이용자가 “구세주 오셨다!”고 하며 반갑게 맞아주면 노고가 다 풀린다. ‘내가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다음날 출근하는 발걸음이 신나고 더욱 가벼워진다.

일에 목말라 있던 40대 시절의 나에게 인생 후반부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이 일이 너무 소중하다. 조만간 이 가정의 돌봄이 종료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돌봤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의 쌍둥이에게 나의 돌봄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나의 모자람이 나쁜 영향력으로 남아 있지 않기를,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밝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해본다.

나 편하자고 그만둘 수는 없지!



박성진

안양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의 아들과 딸들은 맞벌이부부여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가끔 멀리 사는 손자들을 찾아가면 아이돌보미께서 친할머니 이상으로 손자들을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손자들이 안전한 양질의 양육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것을 보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한 좋은 제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이돌보미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가정과 서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소통하고, 가족처럼 지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힘든 날엔 혼자 눈물도 흘리고 가슴앓이도 했지만, 가족센터 아이돌봄 담당 선생님들의 친절함 상담 덕분에 아이돌봄의 노하우와 지혜가 쌓여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돌봄 10년차가 되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돌봐주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여자아이가 있다. 5세 여아와 연계되어 사전에 보호자인 아빠와 면담을 했다. 그 면담을 통해 한 부모가정인 그 집에 오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자주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

다.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일어나는 아이는 늘 불안해하며 울었고,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가 떼를 써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 손자들 또래인 아이가 너무도 안쓰러웠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집 사정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었다니, 사정이 딱하군. 새벽 5시까지 가려면 당신도 쉽지 않을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맞는 말이다. 남편 말을 듣고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며 잘 보살펴줄 마음의 각오를 충분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나의 좌우명대로 ‘어렵더라도 나 편하자고 그만두지는 말자.’고 결심했다.

드디어 돌봄 첫날이 되었다. 아이는 새벽에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종종걸음으로 따라나섰다. 내가 곁으로 다가가서 “업어줄까?” 하니 얼른 업혔다. 그리고 내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더니 “엄마! 엄마!” 하며 엄마를 두 번 연거푸 불렀다.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눈물이 팡 돌았다.

첫 새벽 돌봄은 이렇게 아이를 업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등에서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가벼웠다. 아이는 저체중이고 몸이 너무 허약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를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 그리고 불안한 정서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업고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나무, 하늘을 나는 새 등을 보며 동화구연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었더니 아이는 “엄마! 엄마!”라고 했다. 또다시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주었더니 아이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의 기분을 파악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

였다. 그러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밝은 모습을 되찾은 아이를 보며 나는 손자 5명을 둔 할머니가 아니라 손자 6명을 둔 자랑스러운 할머니라고 자부심을 가졌다. 나의 손길이 꼭 필요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서 열정적으로 돌봄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다섯 살짜리 아이는 쑥쑥 잘 자라서 지금은 예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되었다. 아이는 나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그때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짜증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돌보미 선생님이 엄마처럼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줘서 좋다고 한다. 그리고 돌보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기도 훌륭한 돌보미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한부모가정에는 특히 정서적 안정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특히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속마음을 읽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깨치지 못해 걱정스러웠지만, 아이 아빠는 한글은 몰라도 된다면 알게 될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예쁜 초등학생이 메고 갈 가방 속 공책이 눈에 띄자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돌봄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한글을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글자가 큰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아이가 책에 관심만 보여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반복해서 동화책을 읽어주었더니 아이는 차츰 한 글자씩 깨쳤다. 그리고 내가 동화구연을 하는 것을 귀담아들으며 동화를 줄줄 외우게 되자 아빠 앞에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자랑스럽게 동화구연을 했다. 아빠도 흐뭇해서 활짝 웃었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인 돌보미 선생님 집에 대해 궁금해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돌보미 선생님 집에 놀러가고 싶다고 해서 아빠의 허락을 받고 우리 집에 놀러왔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나비를 잡아주고,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이름도 알려주고, 심어놓은 채소를 함께 따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를 기특해했다.

내가 처음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하며 적응이 안 되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편해지자고 도중에 이용자 가정을 옮길 수는 없다’라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이돌보미로서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초보 시절에 한 약속을 지킨 나는 사명감이 투철한 아이돌보미라고 나 자신에게 ‘엄지 척!’을 하며 격려해주고 싶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돌봄활동을 했더니, 고생 끝에 낙이라고 5살짜리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생이 되어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고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한부모가정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느라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젊었을 때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동화구연가, 마술지도사 등이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어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신뢰로 이용자 가정과 함께하며 양육에 도움을 주는 아이돌보미는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령화와 저출산, 핵가족화 시대에 아이돌보미 활동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는 일에 다시금 자부심을 느낀다. 따뜻한 봄날에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듯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준 초등학교 2학년 돌봄아동과의 인연이 내게는 소중하기만 하다.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 가정이 있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 넘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을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데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기꺼이 상담해준, 늘 친절한 안양시 가족센터 담당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나의 행복은 현재진행형



박승춘

서울시영등포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OO야~, 개구리가 폴짝 높이뛰기를 하네~!”

“이번에는 멀~리 뛰어서 OO한테 가고 싶은가 봐~!”

이렇게 소리치며 색종이로 만든 개구리의 엉덩이를 가볍게 톡톡 건드리면, 낮을 가던 아이들도 무장해제하고 가까이 다가온다. 색종이 해바라기꽃을 꺼내 팽이처럼 돌려주면, 나를 따라서 꽃을 이리저리 돌려보려고 집중한다. 꽃의 얼굴에 스마일 표정을 그려넣으면 내 마음도 환해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몇 번 재미있게 놀다가 아이들 특유의 호기심에 곧 색종이를 잡아 당겨 펼쳐보기도 하고, 찢어서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그거야 또다시 접으면 되는 일이고, 찢어진 색종이로는 비나 눈을 만들어 흠뻑리며 새로운 놀이로 이어간다.

작년 가을의 일이다. 오전에 형제를 돌보았는데, 연년생이다 보니 잘 놀다가도 금방 싸워서 육아휴직중인 이용자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아이들과 집중해서 놀아주는 시간에 이용자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다. 집 주변 산책을 할 때, 툼툼이 익혀두었던 식물과 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28개월 큰아이는 눈

을 반짝거리며 함께 탐색하고 흥미로워했다. 자주색 좀작살나무의 열매를 한 움큼 따기도 하고, 고운 단풍잎을 주워서 흠뻑리며 재미있게 놀았다.

아이들은 아직 언어표현이 원활하지 않을 때라 행동이 앞섰다. 하루는 형제가 장난감 하나를 놓고 다투다가 동생이 형을 물려고 와락 달려들었다. 그 순간 내가 창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어? 창박 잣나무에 새들이 왔네? 와~!!! 박새 네 마리가 놀러왔어~! 진혁이랑 진규가 잘 노는지 궁금한가 봐~!!!”

그러자 두 아이의 시선이 일제히 밖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언제 싸웠냐는 듯 요리조리 날아다니는 박새에게 재잘재잘 이야기를 걸면서 한참을 잘 놀았다. 나도 두 형제를 키웠으니 개구쟁이 연년생 사내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수고를 잘 이해한다. 그래서 라디오 육아상담 방송을 듣다가 비슷한 또래의 사례가 나오면 이용자분에게 방송내용을 보내주며 마음을 나누고 있다.

올해로 아이돌보미를 시작한 지 10년째. 여러 사정으로 몸도 마음도 아파서 쉬고 있을 때, 버스에서 베이비시터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다. 내 성격에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그날로 찾아가 접수했다.

200시간의 교육 후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돌보미에 지원했는데 다행스럽게 합격이었다. 처음엔 키도 작고 왜소한 나를 이용자분들이 좋아할까 걱정했는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놀아주니 처음 시작한 남매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이사 가며 헤어질 때 “선생님, 일산으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하는데, 그저 인사로 하는 말일지라도 고마웠다.

아이돌보미 2년차에 세 살 사내아이를 토요일에 돌보았다. 학창시절에 방황하며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고 일찌감치 아빠가 되었다는 이용자는 아내 없이 혼자 세 살 사내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꼬박꼬박 등원을 시키고, 한 달에 쉬는 날이 두 번뿐인 바쁜 와중에도 아이와 잘 놀아준다고

아이의 할머니가 전해주시는 말을 듣고 참으로 고마웠다. 할머니가 일을 쉬게 되면서 몇 달 만에 돌봄을 종료하게 되었지만, 아빠와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끼던 과학동화 전집을 선물로 주었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아이가 안쓰러웠지만,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것이다. 아빠가 사랑으로 키우고 있으니 틀림없이 잘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백일 아기를 10시간 종일제로 돌보게 되었을 때 어리디어린 영아를 돌보게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출산 백 일 만에 복직하게 된 엄마가 아기의 하루를 무척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쁜 노트를 마련하여 성장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기가 주로 누워 있거나 자고 있어서 기록할 내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매일매일 쓸 내용이 풍부해서 나 스스로도 신기했다. 그림을 그리고 색종이를 접어서 사계절 다른 그림판을 벽에 걸어주고, 천장에는 해와 달, 별을 접어서 붙였다. 알록달록 무지개, 여러 가지 꽃들과 나비, 잠자리, 도토리, 다람쥐 등 다양한 자연물들을 붙이고 나니 자연스레 온갖 동요들이 떠올라 아기를 안고 노래를 참 많이 불러주었다. 아기만의 응가책도 만들어서 배변 훈련도 했다.

클래식 음악을 듣다가 발레 음악이 나오면 함께 손을 맞잡고 춤도 추고,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아기와 놀다 보면, 10시간이 금세 지나가버렸다. 하루하루가 참으로 즐거운 날들이어서 힘든지도 모르고 3년을 지냈다.

전문직 여성인 아기 엄마는 “선생님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인사를 했다.

여성들이 힘들여 공부하고도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나를 믿고 일에 전념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뿌듯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아기 엄마가 새로운 발령지로 이사가는 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이의 3년 동안의 성장일기를 선물로 전해

주었다.

그후 나이 어린 미혼부와 미혼모의 아기들도 돌보게 되었다.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좋을 텐데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순간이 많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인천에서 삼 남매 가정의 막내를 돌보는 동안, 두 형제랑 바깥놀이를 하며 한숨을 돌리다던 어머니로부터 소득 재판정으로 돌봄 이용을 중지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의 급여가 인상되어 이용요금이 꽤 상향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동안 한 짐 덜고 지냈는데 앞으로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쌍둥이 돌봄을 하였다. 엄마의 취업으로 인하여 소득 재판정에서 종전보다 이용요금이 100퍼센트 이상 상향되자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돌봄 이용을 중단하게 되었다. 2월부터는 연로하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힘들다고 해서 안타까웠다.

새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도 버거운 현실이니 개개인에게 육아의 부담을 온전히 지울 수는 없는 현실이다.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줘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즐거운 육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울 때 더없이 행복했기에 아이돌보미로 일을 시작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아이가 그냥 떼쓰고 우는 것 같아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체득한 뒤에는 우는 아이도 귀엽다. 지나가는 아기들을 보기만 해도 예뻐서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하물며 매일매일 귀여운 아기들의 재롱잔치를 보면서, 또 내가 아기에게 재롱잔치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의 행복은 현재진행형이다.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마다 동네마다 넘쳐나면 좋겠다. 여성들이 육아 걱정과 부담을 덜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집의 수어가는 나무 그늘이자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



박 정 숙

세종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나 자신을 위한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게 무엇일지 오랜 시간 생각만 하던 중 친구 하나가 정말 괜찮은 일이 있으니 같이 시작해보는 게 어떨겠냐고 했다.

‘아이돌보미’는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한다고 했다. 좀 더 알아본 결과, 믿을 만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바로 내 일이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면접을 보았다. 면접에 통과한 뒤, 양성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 셋을 낳아서 키웠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놀아주고 돌봐주는 돌봄활동이 체력적으로는 힘들어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기대가 더 컸던 것 같다.

내 나이에 아이돌보미로 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며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아이돌보미가 된 것이 이토록 내 인생에 큰 도전과 감동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너무 힘들어서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나을까?’ 생각한 날도 있었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엄마들과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 날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날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집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보호자인 엄마들과 마음을 맞추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대하며 잠깐 오는 선생님 정도로 선을 긋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엄마들도 있었지만, 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하는 엄마들이 더 많았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나도 경험과 배움을 통해 성장해갔다.

아이돌보미로 여러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다가 나는 친딸 같은 민준이(가명) 엄마와 친손자 같은 민준이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이 집에서 돌봄을 한 지 벌써 4년이 넘었다. 그사이에 민준이도 많이 자랐고, 나를 친할머니보다 더 잘 따른다. 평범한 가정이었다면 내가 민준이와 민준이 엄마에게 이렇게 애정과 진심을 담아 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다. 민준이는 돌봐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고, 민준이 엄마도 돌보미 선생님이라는 선을 넘어 그들의 가정에서 의지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민준이 엄마는 20대라는 이른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밤에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 심정이 오죽하겠냐 싶지만, 어쨌든 평범하게 살지 못하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고, 아이를 맡기거나 의지할 곳도 없었다. 처음에는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처음 민준이네를 갔을 때 밤마다 엄마 대신 나랑 잠드는 민준이는 평평 울며 엄마를 찾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리 엄마를 찾아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4살의 어린 민준이는 단념했다는 듯 더 이상 울지 않고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고작 ‘엄마!’ 정도였다. 돌보미 선생님인 나에게도 ‘엄마’라고 하며 잠들었기에 민준이에게 더욱 마음이 쓰였다.

민준이는 말이 매우 느렸고, 5살이 되어서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언어치료를 받아야 했다. 다행히 실어증이나 자폐는 아니라는 말에 희망이 보였다. 나는 친손자처럼 민준이를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진실된 나의 마음을 어린 민준이도 알았는지 때로는 엄마보다 나를 더 찾고 의지했다. 우리 집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민준이를 손자들과 어울려 함께 놀게 했더니 이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민준이네 가족과 함께 험준한 산을 넘으며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추억과 사랑을 쌓았다. ‘엄마’라는 말밖에 못하던 민준이가 이제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다. 민준이는 학교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의젓한 형이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자란 민준이를 보면 내 마음도 흐뭇해진다.

이제는 민준이 엄마도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나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친딸 같은 민준이 엄마가 술에 취해 힘들다는 녀두리도 하고, 재

미있는 에피소드도 재잘거리다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며 취중진담을 털어놓을 때면 아직도 마음 한편이 뭉클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민준이 엄마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살길을 찾을 수 있었고, 민준이는 방치되지 않고 아이돌보미인 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민준이네 집은 아직도 평범한 다른 가정과는 달리 한부모가정이고, 형편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나의 고단한 삶 속에서 민준이는 나에게 희망이자 사랑이다. 이 아이 덕분에 나는 삶의 보람을 느낀다.

‘내가 민준이네 가족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들의 삶은 나로 인해 조금은 편해졌을까? 조금은 따뜻해졌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해본다. 따뜻한 봄이 오듯 그들의 삶에도 봄이 오길 바라며, 항상 기도한다.

언제까지 민준이네와 함께할지 모르지만 난 변함없이 그 집의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나무 그늘이고, 민준이의 돌보미 선생님이자 버팀목이다.

먼 훗날 더 자라면 민준이는 나를 기억할까? 민준이는 사춘기가 되면 또다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나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아이돌보미 일은 나를 위해 시작했지만, 많은 집을 다니며 새로운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그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나에게 아이돌보미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것이 되었다. 내가 건강하게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동안은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것이다. 요즘 같은 풍요로운 시대에 예전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

슬기로운 아이돌보미 생활



선우현정

서울시서초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023 서초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우연히 눈에 띈 이 문구가 나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였다. 2년 7개월간 노환으로 투병하시던 아버님을 간병하던 나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소천과 갯년기가 주는 우울감으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기 그지없었다.

마감 일주일도 남지 않은 때 뒤늦게 본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큰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서류합격 통보를 받자 나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다. 보육 경력이라고는 교회 주일학교 15년 교사 경력이 전부인데, 그나마 오래 전 일이라서 이력서에 쓰기도 민망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그 15년이 가장 행복했던 날들로 기억될 만큼 난 아이들을 좋아한다. 면접과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양성교육을 받는 동안 같은 기수로 활동할 동기들과 끈끈한 유대감도 생기면서, 점점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 정기로 배정된 돌봄 아동은 맞벌이가정의 외동딸인 초등학교 1학년 시은이다. 교사인 어머니가 육아휴직이 끝나 복직을 앞둔 시점이었다. 면접 때 완전 초보인 나를 신뢰하며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덕분에 서툴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시은이의 돌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움과 힘든 사정이 있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명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한 후, 나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더 큰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찬다.

시은이를 돌본 지 한 달이 지난 1월이었다. 어머니는 복직을 앞두고 제주도로 교사 수련회를 가면서 처음으로 아침 돌봄을 부탁하셨다. 아버님이 아침식사를 차려주고 출근하면서 인계하기로 예정되었지만, 실상은 잠이 덜 깬 시은이를 깨우느라 식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난감해하시며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다. 출근 시간에는 5분 차이로 도로 사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을 알기에 내게 맡기고 출근하시라고 했다.

시은이를 살살 달래며 기상시키고, 아침식사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가 아버님과 통화하며 상황을 들으신 후 깜짝 놀라 전화를 하셨다. 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드렸다.

그날 시간 일정대로 간단하게 메모를 남겨 상황을 알려드리고 저녁에 아버님께 인계하며 어머니의 연수 기간 내 돌봄을 무사히 마쳤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선생님 덕분에 맘 편히 복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라며 고마워하셨다.

그 말을 들으니 새삼 뿌듯하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월까지의 시은이도 복직을 하게 된 어머니의 부재 시간에 적응을 해야 했다. 시은이 어머니는 지혜롭게 그 시간 동안 시은이와 내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잘 조율하셔서 돌봄 초보인 나 역시 무리 없이 돌봄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한번은 시은이를 학원에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길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

“선생님, 만약에 엄마가 집에 안 돌아오셨으면 어떡해요?”

“걱정 마. 선생님이 엄마가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그런데 만약에 엄마도 아빠도 12시가 넘도록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음... 선생님이 엄마, 아빠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줄게. 잘 때까지 안 오시

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면 되지. 시은아!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너를 지켜주는 돌보미 선생님이야. 그게 선생님의 의무란다. 그러니 절대 너를 혼자 두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은이를 안심시켰다. 물론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만, 예정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져 연락을 하시면 행여나 급하게 운전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좀 늦어도 괜찮으니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돌봄 아동을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돌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 계기가 있었다. 한번은 교육이 있어서 오랜만에 동기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육이 끝난 후 식사와 티타임을 가졌다. 양성교육 후 오랜만에 만나서 모두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 선생님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내가 돌보는 아동인데 너무 예쁘지? 난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봤어.”

사진 속 아이는 내 눈에는 그저 귀여운 평범한 아이였다. 그때 또 다른 동기 선생님이 핸드폰에서 사진을 찾아 보여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보는 아이가 피부도 보양고 훨씬 잘생겼구먼. 이 아이 좀 봐요.”

우린 그 아이를 보았다. 역시 그저 평범한 아이로 보였다.

나도 질세라 핸드폰을 꺼내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돌보는 아이야. 예쁘고, 키도 또래 중 제일 크고, 날씬하고, 엄청 톡 톡해.”

다른 선생님이 보시더니 “에이, 그저 평범한 아이구먼. 그래, 키는 커 보이네.”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서로 돌봄 아동 자랑으로 정신없이 주거나 받거나 하다 보니 문득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 부모처럼 굴었던 것이다. 돌

보미 선생님들이 돌봄 아동을 자식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다.

인적성 검사를 통과해서인지 우리 기수 돌보미 선생님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잘 챙겨주고 정이 넘친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한다. 한 선생님은 돌봄 아동이 골이 나서 팔꿈치로 선생님 얼굴을 때린 적이 있었다. 일주일 뒤에 그 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멍든 눈두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있어 하마터면 눈을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 부모에 항의하여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각박한 요즘 세태에서 보기 드물게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기신 인성의 소유자였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나를 보더니 물었다.

“어머, 무슨 시술이라도 받으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시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는데, 시술을 언제 받아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많이 안 좋으셨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시술을 받으셨나 했어요.”

일명 아이돌보미 시술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갱년기의 우울함과 무기력을 날려주고, 육아 전쟁으로 전전긍긍하는 가정에 안정감을 주고, 안심하며 직장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니 이처럼 보람 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건강하게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그만 두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건강도 되찾았고, 무료했던 시간이 알찬 시간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쇼핑을 하러 나가면 수십만 원씩 돈을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알고 나니 충동구

매로 쓰지도 않을 물건을 사들이는 고약한 버릇이 짝 사라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에 빠진 지금,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돌보미 선생님을 믿고 워킹맘 어머니들이 맘 편히 둘째, 셋째를 출산해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에서 탈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이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돌본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하여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슬기로운 아이돌보미 생활을 한다.

아이들은 또 하나의 세상



손 경 애

천안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일흔두 살의 6년차 아이돌보미다. 6년 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통학 문제로 아내와 아이들과 잠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들을 뒷바라지할 겸 천안에 머물면서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하려 했지만,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 때문인지 어린이집에 재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회사에서 40여 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나로서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불편하기만 했다.

어느 날 생활정보신문을 보다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사실 청주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면서 짬짬이 아이돌봄을 했기에 부담없이 도전을 했다.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아이돌보미로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아이돌보미로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하기도 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둘이 지내는 K는 마음속 상처가 너무 크고 아파서인지 말과 행동이 난폭했고, 할머니 같은 나한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상처가

있는 아이였기에 나는 할머니 같은 애정으로 보듬어주며 꼭 끌어안고 사랑을 주었다. K의 아빠는 3교대를 하는 직장인이었다. 아빠가 야간근무를 할 때는 내가 아이와 함께 잤다. K는 항상 내 손을 꼭 잡고 잠을 청했다. 자다가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도 꼭 같이 일어나 화장실까지 따라올 정도로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였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K가 나를 끌어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울었다. 나는 말없이 K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다. 아빠 앞에서는 엄마가 금기어이기에 K는 말도 못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아침에 들어온 아빠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며칠 뒤, 아빠는 아이를 위해 결심하고 헤어졌던 엄마를 찾아가 재결합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재결합하게 되었다. 재결합의 다리가 되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준 그때를 떠올리면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돌보미로서의 보람도 느낀다. 나는 K처럼 마음이 아픈 아이를 보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6년 전 일을 시작하면서 만난 17개월 된 J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염둥이였다. 그러나 2년 뒤, J의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J는 엄마가 양육하게 되었다. 나는 계속 J의 돌봄을 이어갔고, 지금도 제2의 보호자처럼 돌보고 있다.

J는 언어발달이 정말 빨랐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변호사나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속보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뉴스거리를 만들어 뉴스를 진행하는데 여섯 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서 듣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뛰어난 말솜씨와는 반대로 한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주어도 다음날 다시 물어보면 정말 까맣게

잊어버렸고, 공책을 준비해 한글을 써서 가르쳐주어도 그냥 잊어버린다. J는 지금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고 있다.

J는 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깊다. 아기 때부터 키워준 돌보미 선생님이 제일 좋라며 내 말이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아이다.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밝게 자라는 J에게 나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J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도 J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

2021년 4월, 13개월 된 H는 연년생 동생이 생겨 돌봄을 신청하게 되었다. H는 돌은 지났지만 걸음마도 아직 못 댄 아기였다. 첫아이라서 엄마와 아빠는 더욱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며칠 내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20여 일쯤 지났을 때, H는 첫발을 떼더니 며칠 만에 걸음을 잘 걷게 되었다. 엄마가 돌째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간 뒤, H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돌봐주었다. 3주일쯤 지나서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H가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안아달라고 할까 봐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H는 엄마에게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막아서고, 퇴근하려고 하면 울고 떼를 쓰는 등 나한테만 매달렸다. 그럴수록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H를 열심히 돌봐주었다.

몇 개월 후, H가 말이 많이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말고 다른 단어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아빠도 어렸을 때 여섯 살까 지 말이 늦었다고 해서, 천천히 말문이 트이려나 보다고 생각하고, 산책을 다녀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에 적혀 있는 숫자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H가 현수막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숫자를 읽었다. 그때가 19개월 무렵이었다. 나는 뭘 듯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이 엄마에게 알려주었다. 엄마가 달력을 가져와서 숫자를 가리키니 아이는 포박포박 숫자를 읽었다. 그 후 자석판과 숫자, 영어 알파벳과 한글 자모음 카드를 구해서 가르쳐주었다. 20개월도 안 된 아이는 한번 알려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따라 했다. 한글은 내가 ‘ㄱ’과 ‘ㄷ’를 가르쳐주고 ‘가’, ‘거’, ‘고’, ‘구’를 말해주면, H는 ‘ㄱ’을 가지고 그대로 글자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는 물론 아이돌보미인 나도 그런 H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크나큰 행복을 느꼈다.

H는 세 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말문이 다 트이지는 않았다. 어린이집에 가려고 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어서 언어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한번 알려주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력도 좋은 푼돌이 H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지금까지 여러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도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꾸밈없이 맑고 여린 아이들은 나에게 또 하나의 세상이었다. 어른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순수한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투영되는 것을 보고,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며 맞벌이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부모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돌봄활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봄날에 꽃을 기르는 나



이 미 옥

구미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벚꽃이 반발한 진해의 바다를 지키는 나의 딸은 해군 부부다. 십수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많은 아이들과 함께했지만 정작 내 손자의 돌봄은 거들지 못했다. 그런 딸이 지금도 씩씩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돌보미 선생님 덕분이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매일 바다로 향하는 딸이 무심한 듯 건넌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출산율이 낮아진 탓에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나 이 탓만 하고 있었다.

‘이제 나도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때 딸아이가 지나가는 말투로 한마디 툭 던졌다.

“엄마도 아이돌보미 일을 해보지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내가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십수 년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서 아이돌보미는 누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어. 게다가 길을 가다가 어린이를 보면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도 못하잖아!’

나는 곧바로 아이돌보미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다. 나이 때문에 고민되었지

만,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모집공고의 문구에 용기를 내어 도전한 결과, 합격 소식을 받았다.

‘나도 아직 늙지 않았구나! 얼마든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구나!’

합격 소식에 기뻐하며, 낮아졌던 나의 자존감도 높아졌다.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아서 2주간 교육을 받는 것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에게 가장 친근한 환경이 가정인데, 가정 안에서 아이의 성향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수용하여 돌봄을 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야말로 아이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육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 실습을 마친 후 처음으로 배정받은 가정은 교사 부부 가정이었다. 내 딸과 처지가 비슷한 가정인 것 같아서 아침과 저녁 돌봄을 모두 맡기로 했다. 그런데 돌봄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용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교사 부부여서 방학 기간에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으니, 방학이 끝난 뒤에 다시 연계해도 될까요?”

나는 이용자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한 달여의 공백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부모님들을 많이 대해본 덕분에 이 어머니는 나와 약속을 지킬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다. 센터와 상담 후 나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며 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갑자기 갖게 된 한 달의 공백기 동안 어떤 가정과 연계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센터 담당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긴급한 위기가정이 있으니 선생님이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다. 사전에 센터에서 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돌봄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며 그 가정이 위치한 원룸촌으로 향했다.

이제 막 돌이 된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풍겼다. 집 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공간에 반짝이는 아이가 있었다. 검고 큰 눈망울에 보얀 피부, 어두운 집 안을 밝혀주는 환하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를 보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월친 데 댔친 격으로 그동안 손자를 돌봐주던 할머니는 암투병으로 더 이상 손자와 아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할아버지 또한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손자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여기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가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이 아이의 돌날이라고 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다음날 아이에게 내의 한 벌을 선물했다. 그렇게 나와 아이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보통은 환경에 지배받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아이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오히려 힘을 얻었다. 내가 돌보는 시간만이라도 아이가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정된 돌봄 기간인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열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날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아픈 날이면 종일 돌보며 함께 아파하기도 했다. 아이의 아픔과 가족의 아픔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내 마음도 힘들어질 때에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썼다.

한 달이 거의 다 지날 무렵, 다행히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나의 돌봄 시간은 주말로 바뀌어 주말마다 연계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이면 성당과 아이의 가정을 오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기에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첫 연계 가정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다. 연계 가

정의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어머니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덕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는 등원 길이 무척이나 유쾌했다. 부부가 어찌면 그렇게 똑같이 밝고 긍정적이며 열심히 사는지 모른다. 아침이면 꼭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등원 준비를 부탁하며 서둘러 학교로 출근하는 어머니. 바쁜 와중에도 밝게 인사하며 매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 나도 저절로 힘이 났다. 퇴근 후에는 부부 중에 먼저 퇴근하는 쪽이 식사를 준비하고, 그동안 나는 아이들을 돌본다. 한 달 식단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 식단표대로 척척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예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도 한 수 배워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네 식구의 저녁 시간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이런 저녁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날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을 거예요. 아이들과 저희에게 저녁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늘 감사인사를 전했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내가 한 가정에 저녁 시간을 선물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어린 시절에도 저녁 식사 시간은 배를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는 어머니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마움과 벅찬 감정을 느꼈다.

내가 평일에 방문하는 가정과 주말에 방문하는 가정은 매우 다른 가정이다. 어찌 보면 각각 행복의 끝과 힘듦의 끝에 있는 가정이지만, 나에게서는 두 가정 모두 나의 손길을 기다리며 나를 원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서로 다른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

나이가 많으니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는 센터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이

렇게 대답한다.

“아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나이는 60대 중반이지만 마음은 분홍색 벚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이다. 내 마음속 벚꽃을 방문 가정에서도 활짝 꽃피우며 매일, 매주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봄날의 꿈을 꿀 것이다. 나의 돌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봄날의 꽃들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나에게 엄마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이돌보미라는 보람된 타이틀을 선물해준 딸에게 감사하며, 나의 돌봄이 돌고 돌아 손자에게도 닿길 바란다.

내 인생의 황금기



서 경 란

영양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나는 경상북도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2년 7월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맡고 있다. 내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3년째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을 맡고 있다.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큰 결실을 맺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나에게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신나게 달려서인지, 아이돌봄 담당자로 근무해온 지금의 심정은 땀 흘려 등산을 하여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맛보는 상쾌한 바람처럼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감사하고 소중하다. 영양군은 현재 전국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군이다. 영양군 전체 인구가 1만 5천 명에 불과하고, 그중 만 13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아동은 천 명도 안 된다. 그런데도 지난 12년 동안 영양군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급속히 활성화되어 현재는 대상아동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처음 이 사업을 맡은 2012년에는 돌보미 선생님 3명에 이용 아동은 5명이었고, 사업비도 관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총 3천 6백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돌보미 선생님 54명에 이용 아동은

300명에 가깝고, 사업비는 2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전국의 어떤 담당자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노력한 덕분에 많은 이용자와 아동이 꼭 필요할 때 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일을 하면서도 신바람이 났던 것 같다.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발로 뛰는 담당자의 길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내가 주력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아이돌보미 선발이다. 나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우수한 아이돌보미 선발을 위하여 돌보미 선생님들을 찾아 나섰다. 현장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셔야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모의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부모를 대신해서 숙제까지 점검해줄 수 있는 우수한 돌보미 선생님을 선발하는 데 힘썼다. 나의 예상이 적중해서 작은 시골 동네에 돌보미 선생님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소문이 돌자 이용자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시골에는 제대로 된 학원도 찾기 힘들다 보니 아이들과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면 이용자들이 경쟁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했다.

두 번째는 이용자 가정 확보다. 물론 우수한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용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먼 단위 골짜기에 살고 있고, 읍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이용자들이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시골 골짜기마다 이용자를 찾아 나섰다. 내가 예상한 대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용자 가정은 정말 많았다. 조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일반 가정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정의 자녀들이 시골 마을에는 생각보다 많았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접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며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았다. 그래서 내 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같이 동행하기도 하면서 처리를 도와드렸다.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된 이용자들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고마워하셨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때 오지까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주신 돌보미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의를 표한다.

세 번째는 아이돌보미 관리 부분이다. 2012년 3명에 불과했던 돌보미 선생님이 12년 만에 18배로 늘어서 54명에 이르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영양군의 돌보미 선생님들은 퇴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돌보미 선생님들은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계속하신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돌보미 선생님들과 담당자인 나 사이의 단단한 유대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자랑 같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돌보미 선생님들은 “우리는 서 선생님만 믿고 일하고 있어요. 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돌보미 선생님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와 돌보미 선생님들은 한 배를 타고 사업을 같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런 생각이 돌보미 선생님들께도 전달되어 선생님들도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이렇듯 우수한 돌보미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영양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의 인근 군들의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좋은

사회인으로서의 1년



이 세 빈

달성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안녕하십니까? 대구달성군가족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이세빈입니다.”

오늘도 서비스 이용 희망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늘 하는 똑같은 멘트로 운을 뚫다. 나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약 1년간 이 사업의 연계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대상자를 전화상으로 만났다. 다른 여타의 복지사업들처럼 직접 대상자와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아이돌보미와 이용 가정을 소개하겠다.

3달 만의 이용 종료

우리 센터 돌보미 선생님들의 주된 연령층은 5060이지만, 70대 선생님도 몇 분 계신다. 70대 선생님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지만, 모두 아이돌봄에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해주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의 연령이 높아지면, 건강이나 체력 등의 이유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해 봄부터 다른 선생님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 우리 기관은 평가에서 10년 넘게 계속 A등급을 받았고, 2018년과 2021년에는 ‘최우수기관상’도 받았다. 꼭 필요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발로 뚫은 보람을 느끼고, 참 자랑스럽다.

이용자가 돌봄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고, 돌보미 선생님도 활동이 가능하신데,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자가용도 없어서 서비스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내 차로 돌보미 선생님을 태워다드렸다.

앞으로도 나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내 인생의 황금기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해 열정을 불살랐다. 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이 사업에 나의 뼈를 묻고 퇴직할 때까지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꺼리는 영아나 불규칙적인 일정도 마다하지 않고 활동을 잘해주셨음에도 연령 때문에 두어 달 동안 정기 가정에 배정되지 못한 선생님이 계셨다. 여름에 그 선생님이 새로운 가정에 배정되시자,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갓난아기를 돌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좀 더 젊은 선생님은 안 계세요?”라고 물으셨다. “이용자님 댁 근처에 거주하는 아이돌보미는 몇 분 없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이용 일정도 불규칙하다 보니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그 선생님밖에 없으십니다.”라고 답변하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세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버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희 이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지 않으면 짧아도 6개월은 이용하고, 7년 넘게 이용하는 분도 계시다.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용자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 아내와 별거중이었고 이혼을 준비중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했는데, 돌보미 선생님께서 중간에 의견 조율을 잘해주셔서 아내분과 다시 잘 지내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이용자분께서는 돌보미 선생님의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시다가, 혹시 다음 가정으로 가실 곳이 없으시면 본인이 좀 더 이용해도 괜찮다고 하셨다. 선생님을 받아주는 가정이 거의 없기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 여쭙보았다. 선생님은 근무를 더 하고 싶긴 하지만, 그 가정에는 더 이상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이돌봄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가정으로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다.

결국 그 이용자분은 이용 종료를 하고 선생님은 다른 가정으로 배정받지 못해 퇴사를 고민중이시다. 보육교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

이 깊고 전문성도 뛰어난데 그만두시게 되니 종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선생님은 고령에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붙잡지는 못하였다. 정말 멋진 분이고, 나도 노년이 되면 선생님처럼 연륜이 쌓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용자는 내 친구?!

담당 지역 이용자분 중에 유독 나를 계속 찾는 분이 있다. 내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건지, 본인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전화를 걸면 늘 밝은 목소리로 “네, 담당자님! 왜 전화하셨어요?”라고 하시고, 전화를 받으면 “저희 담당자님이시죠?”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네, 어머님, 다사 담당자 이세빈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다른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받으면 “우리 담당자님 바꿔주세요.”라고 하고, 나와 연결이 어려울 때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걸게요.”라고 하신다고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친근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아마 지난해의 일이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다.

입사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당시 이 이용자분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지 1년쯤 지났고, 초등학생 아동 하나가 있는 맞벌이가정이었다. 어느 날, 이 이용자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둘째 출산으로 인해 첫째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며칠간 거의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알겠다고 답변드린 후, 활동가능한 아이돌보미를 알아보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고, 그 소식을 이용자분께 전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용자 남편분께서 급하게 연락을 하셨다.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번 주말에 출산할 것 같다고 하셨다. 나는 정신없이 돌보미 선생님들께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당장 모레부터 그렇게 긴 활동이 가능한 선생님을 찾기란 쉽지 않았

다. 일단 퇴근을 포기하고 계속 전화를 돌렸고, 사무실은 점점 비어갔다. 동일한 선생님들께 몇 번씩 전화를 돌렸을 때, 선생님 몇 분이 활동을 수락하셨다. 결국 선생님 세 분이 시간을 쪼개서 배정되었다. 이 소식을 이용자 남편분께 알렸다. 남편분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은 후, 갸름해진 하늘을 바라보며 퇴근했다. 며칠 뒤, 이용자분께서 전화를 하셨다. 힘없는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는데,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1년간의 나의 모든 경험을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라서 기억에 남는 두 분만 소개하였다. 처음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연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활동이 가능한 선생님을 연계하면 된다고 하여, 퍼즐 맞추듯 맞춰가면 되겠거니 했다. 하지만 사람은 퍼즐이 아니기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직도 연계해준 가정과 아이돌보미가 대판 싸우고 나에게 하소연할 때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진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가정 상황에 대해 울면서 하소연하는 이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종사자에게 큰 힘이 된다.

지금 나는 다양한 가정의 다양한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나라의 새싹들을 빈틈없이 돌봐줄 수 있도록 돌보미 선생님을 연계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멘트를 날리며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대구달성군가족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이세빈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을 것 같다.

새로운 도전과 소망



황소정

광양시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따르릉 따르릉!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입니다.”

하루 업무의 시작을 전화벨과 함께한 지 오늘로 딱 2년이 되었다.

대학병원 간호사와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간호사로 총 16년간 일하다가 이직한 새내기 사회복지사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에서 사회복지기관 사무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전환점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지침을 숙지하고 시스템을 배우고 적응하며 일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 올해부터는 전담에다가 아이돌봄 사례관리까지 병행하게 되어 책임감을 더욱 막중하게 느끼며 일하고 있다.

하루에 이루어지는 전화통화가 많을 때는 70~80통이 넘는다. 상담, 연계, 각종 보고, 공문 등의 서류,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간호사였던 사회복지사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랜 직장생활 동안, 맞벌이를 하는 선배와 친구들이 육아공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기에 이용자들의 마음을 더 잘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고,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이용자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었다. 더 나아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이 단순히 일을 떠나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각종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처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돌보미 선생님들을 지원했다.

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연계 시 그 질병에 주의해야 할 점과 돌봄 방법 등을 돌보미 선생님께 안내하여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면 수두의 경우, 수포 접촉, 침, 재채기 등의 공기 전파가 되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려워하며 긁지 않도록 시원한 환경을 조성하고, 잦은 손 씻기가 필요하며, 딱지가 생기면 전염성은 없지만 열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체온 측정도 한 번씩 해야 한다 등의 정보를 드린다. 물론 이용자에게도 아이돌보미를 보호해야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아동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드린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연계하는 담당자가 한 번 더 언급해주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꼭 전달하도록 한다.

질병에 대해 꼭 필요한 돌봄 방법을 이해하는 아이돌보미가 나의 아이를 돌봐준다는 생각이 들면, 아동은 편안하고 이용자는 만족을 넘어 감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서비스를 연계하다가 이용자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비스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안쓰러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온가족보듬사업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해드렸다.

“주말에 긴 시간 서비스인데, 아동의 집에 놀잇감이 부족해서 제가 직접 크레파스, 스케치북을 사들고 가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증 장애아동은 아직 손에 힘이 부족하고, 엄마도 장애가 있어 신경을 못 써주셔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줄긋기, 한글, 숫자쓰기 등의 자료들을 출력해서 아침 등원시간에 조금씩 하고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 아이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하게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와 즐거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와 같은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돌보미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정성과 헌신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동료들과 의견을 나눠 돌보미 선생님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놀이활동 물품을 구매하여 선생님들에게 배부하였다. 너무 유용하고 좋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하고, 보내주시는 사진들을 모아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말을 경청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기관 종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만족, 감동의 시작은 센터와 이용자의 전화 통화에서 시작된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른이 된 뒤에는 돌보미 선생님을 떠올리며 미소 짓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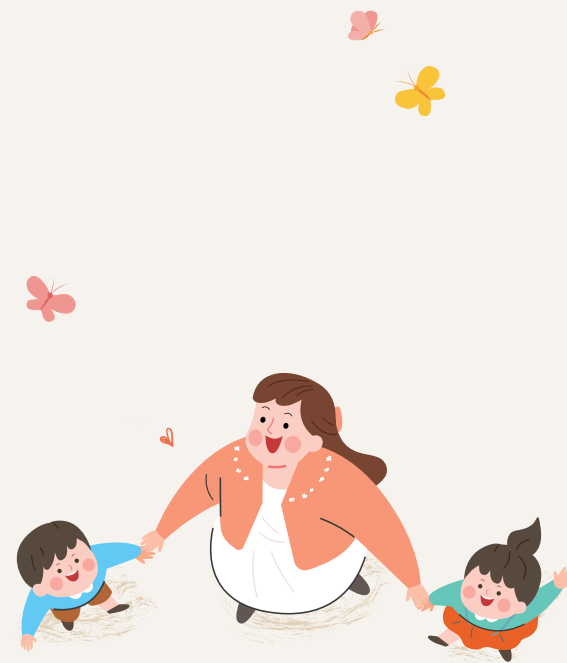
지금도 지인들은 간호사 생활이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가 저에게 잘 맞아요. 수많은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를 전화로, 때로는 대면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런 응대들이 귀도 목도 아프고 힘들지만, 힘들 속에 보람이 느껴지고 재미있어요.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좋은 아이돌보미를 보내드려 아동과 이용자가 삶의 균형을 찾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돌보미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무척 매력 있어요.”

아동, 이용자, 그리고 아이돌보미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돌봄,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진심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를 하고 싶다.





2024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 수상집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전주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24층
전화 02-3479-7600
홈페이지 www.kihf.or.kr
기획·편집 돌봄지원부(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